

건축문화 **사랑**

창간 2주년

Vol.024 10. NOV 2011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 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를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 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1.11 024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 062.521.0025 F 528.0026

02

공동기념사

광주 건축사회 심상봉 회장
전남 건축사회 윤문곤 회장
전북 건축사회 이성엽 회장

축사

강성익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이상정위원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03

특집시론

문화와 건축의 어울림 이병훈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04~05

특집기획

건축문화사랑 창간 2주년 기념
발행인 및 편집위원 간담회



제8회 광주건축 · 도시문화제

11월 3일(목) ~ 11월 6일(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11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녹색건축과 미래건축의 표본을 보여주다

06~08

제8회 광주건축 · 도시문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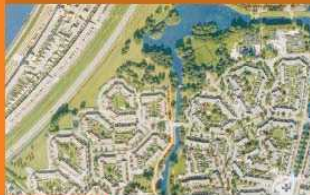
11월 3일(목) ~ 11월 6일(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건축인의 밤 전야제 행사 / 시민 · 학생 참여행사
건축인원 상담 및 건축취업 상담코너 / 건축문화 심포지엄
건축체험 교실 / 광주근대 건축작품전
도심재생공모전 / 광주건축 지도 신간발간

10

건축과 도시계획

세계의 신도시_4부 - 엘라슈타트, 로스앨레모스
_도영준



09

2011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건축문화상 시상 / 건축작품 전시회 / 시화전
설계 · 시공사례 발표 / 학술발표회
건축포럼 / 건축 영화 상영



11

건축과 세계도시탐험

지상의 낙원,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조용준



전남건축사회 2011 건축인의 밤 개최

11월 24일(목) 오후 3시 순천 에코그라드호텔

2nd

12

설계경기

전북 전주시 북부권 복합문화관 건립공사



18

편집후기

건축 문화 사랑 창간 2주년을 돌아보며...



nd

창간 2주년 기념사

공동발행인



심상봉 회장
광주건축사회



윤문곤 회장
전남건축사회



이성엽 회장
전북건축사회

건축문화 사랑

2주년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幸福'하게 합니다.

호남지역 '建築人'들의 꿈과 희망을 담아 발행하고 있는 건축소식지가 '건축문화사랑'이라는 제호로 출발하여 어느새 창간 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발간을 감당해온 편집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建築'을 문화예술로 인식하여 사랑하려면 먼저 건축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인식수준이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지가 호남지역의 건축을 대중들에게 소개하여 건축을 문화예술로 인식시켜 나가는 역할과 건축계의 다양한 소식들을 모아 전하므로 이 지역 건축인들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나가는 역할을 동시에 훌륭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간 2주년을 맞는 우리 '건축문화사랑'이 앞으로도 호남지역 건축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선도 매체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외부의 다양한 문화와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건축문화를 만들어나감으로써, 모든 독자들로부터 환영받는 이 지역의 '건축정론지'로써 역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창간 2주년을 맞으며 다시 돌아온 건축의 르네상스를 꿈꾸어 봅니다.

아름다운 상상의 세계를 기대하는 아이들이 있기에 작가는 희망의 글을 쓰는 것이며, 영화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관객이 있기에 영화감독은 메가폰을 든 것입니다.

We Have a Dream!

아직은 건축을 사랑하고 건축인을 이해하며 동경하는 건강한 이웃들이 있기에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문화사랑'을 통해 우리 건축인들이 갖고 있는 꿈을 함께 꾸고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이 아름다운 계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간 2주년 축사



강성익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문화사랑」 창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호남지역 건축사 여론을 담아내는 공기(公器)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 생각합니다.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문화시대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일로서 정부의 올바른 정책과 함께 교육, 국민인식 계몽, 건축사의 노력들이 한데 어우러져 시너지를 일으켜야 건축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건축문화사랑」의 발행은 호남지역 스스로의 열정에 의해 탄생되어 지역 건축의 희망과 가능성을 심는 대단히 의미 깊은 일로서 건축계 미래를 위한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건축문화를 대변해 온 「건축문화사랑」이 건축계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의제를 설정하고 앞장서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건축문화사랑」의 강점을 더욱 살려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해 언제나 건축과 도시를 위한 진실한 건축계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창간 2주년을 축하하며, 더 큰 번영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건축문화사랑' 창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신문발행을 위해 일선에서 헌신하신 기자와 편집위원,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각 지역 건축사회의 집행부, 그리고 건축문화 창달에 진력하고 계시는 모든 호남지역 건축사 여러분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문화사랑의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이라는 지향점은 우리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추구하고 있는 '몸격있는 생활공간 조성·건축도시분야 녹색성장 기반 구축·창조적 건축문화 실현'이라는 목표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건축문화사랑'을 통하여 지역의 건축문화진흥에 주도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토환경개선에도 선도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을 위한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노력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더불어 시대적 변화와 이상기후에 대응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아름다운 국토와 쾌적한 살터를 조성하는데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년으로 2주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지역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신문·시민들과 함께 하는 신문·전문성을 고취시키는 신문'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건축문화사랑'의 명성에 다시 한 번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더욱 큰 발전이 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설계시공 전문기업

- 특허받은 오수정화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 (특허 제10-1019092호) 인 제거를 위한 하 폐수의 고도수처리 장치 및 방법-KAPHO MBR
- 특허받은 폐수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 (특허 제10-1019092호) 인 제거를 위한 하 폐수의 고도수처리 장치 및 방법-KAPHO MBR
- 특허받은 여과기 설계 및 시공 (특허 제10-0676953호) 액체청정여과장치
- 우수처리시설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계·시공



○○골프장 오수정화조 시공



농협회사법인○○폐수처리시설 시공



시청 세차시설 액체청정여과장치 시공



국진산업개발(주)
www.kukjin.com

본사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365-29
지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2-7

Tel.062-364-9500~1 Fax.062-364-9502
Tel.02-501-9524 Fax.02-535-9912

문화와 건축의 어울림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와 사람과의 어울림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속에 과거의 역사, 현재의 문화, 미래의 희망을 채워 진정한 문화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훈호 단장
문화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오늘날 세계적인 경향은 문화도시다. 문화도시라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 디자인을 도입하여 획일 도시에 문화예술 색깔을 덧입힌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도시 컨설턴트인 찰스 랜드리 교수는 지난 10월 아시아문화마루에서 가진 필자와의 대담에서 오늘날의 도시 계획이 물리적인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표하며 문화와 사회복지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다. 그러나 기반 시설 없이는 소프트웨어도 사람의 행복도 이뤄질 수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덧붙였다.

도시의 개발과 환경,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충돌, 이 모든 것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풀어야 하는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문화를 어떻게 건축에 녹여 내느냐가 바로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문화도시, 건축에 문화예술을 입히다



라이프치히 MOU

필자는 지난 9월에 독일의 라이프치히를 방문했다. 라이프치히하는 통일독일을 주도한 도시이자 대안 공간 문화의 발상지로, 문화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잘 보여주는 도시였다. 이번 라이프치히 방문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라이프치히의 교류 협약 체결을 통해 예술창작자들의 국제 교류의 기회 폭을 넓히는 한편,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라이프치히 시 정부는 방직 공장이었던 스피너리아를 비롯해서 오래된 폐허의 건축물을 예술인들에게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기존 건축물을 문화예술로 탈바꿈하는 활용법

은 비단 라이프치히만이 아니다.

지난 6월 '제54회 베니스 비엔날레' 개막식 즈음해서 몬테네그로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커뮤니티센터 오보드 체티네'의 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구 유고연방시절 냉장고 공장으로 사용했던 건물들을 개조해 대규모 문화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으로, 춤, 연극, 오페라, 음악, 영화, 공연과 같은 무형예술의 교육과 소개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건축법을 통해 고전미와 현대미를 잘 살린 테이트모던은 영국의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템스 강변의 뱅크사이드 발전소를 새롭게 리모델링했다. 뱅크사이드 발전소는 2차 세계 대전 직후 런던 중심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세워졌던 화력발전소로, 공해문제로 1981년 문을 닫았다.

영국 정부와 테이트 재단은 이 발전소를 현대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하고 약 8년여 간의 공사기간 끝에 기존의 외관을 최대한 유지하고 내부는 미술관의 기능에 맞춰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바꾸는 방식으로 개조하였다. 건물 한가운데 원래 발전소용으로 사용하던 높이 99m의 굴뚝이 솟아 있는데, 반투명 패널을 사용하여 밤이면 등대처럼 빛을 내도록 개조하여 이 굴뚝은 오늘날 테이트 모던의 상징이 되었다. 미술관 건물 자체만으로도 볼거리가 된 테이트 모던은 한해 4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런던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공장을 개조해서 박물관으로 만든 미국의 MASS MOCA, 곡물창고를 개조한 발틱미술관, 역시 공장을 전시관으로 바꾼 제네바 근현대 미술관 등이 있다.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기존의 것에 문화예술을 덧입혀 건축물을 활용했다면 새롭게 지어 랜드마크가 된 곳도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가 그 대표적인 예다.

사람이 숨쉬는 도시, 문화가 숨쉬는 도시

2008년 열린 '문화도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이도 토요 건축가는 "문화도시는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가 중요하다"며 도시의 발전과 역량을 위해 "젊은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화도시는 건물만을 짓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활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행복도와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이 진정한 문화도시 시일 것이다.

작은 도시 가나자와가 문화도시로 우뚝 서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에도시대의 멋을 고스란히 간직한 가나자와시의 특화 전략 가운데 하나는 '문화의 생활화'였다. 시는 거대 문화 시설을 만드는 대신 문화가 일상이 되도록 작은 오케스트라와 극단을 만들고 시민들이 각종 문화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배려 정책을 펼쳤다. 1996년 문을 연 '시민 예술촌'은 가나자와시 문화정책의 결정체이며 시민 스스로 문화 활동의 주체가 되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실제로 가나자와 시민 30%는 스스로를 '아마추어 문화 예술가'라고 부른다. 사람뿐만이 아니다. 2년 전 지어진 거시기 미술관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며 특이한 타원형 외관으로 개관 첫해만 157만 명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다. 상하이는 창의산업중심이라는 공사를 설립하여 문화예술 공간인 '홍팡', '라오창팡1933', '모간산루M50'이라는 전시·창작 공간과 문화시설을 만들었다. 이곳은 문화예술공간 뿐만 아니라 공간 전체의 10~20%를 방문객들을 위한 카페 같은 상업 시설을 배정해 창작자들뿐만 아니라 향유자들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방직공장이었던 스피너리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복합문화시설, 아시아문화전당

문화체육관광부는 2004년부터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조성사업의 핵심시설인 아시아문화전당을 구 전남도청 일대에 건립 중에 있다. 2014년 개관 예정인 아시아문화전당은 세계에 유례없는 대규모 복합문화시설로 아시아 문화의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전 세계에 발신하는 문화발전소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앞서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각 나라들이 각자의 문화 역사가 숨쉬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면 아시아문화전당은 두 가지 모두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새로운 건물을 짓고 5·18 보존건물을 보존하고 리모델링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 짓는 건물은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법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전당에는 문화 교류를 통해 아시아문화를 수집하고,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협업하고 창작하는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이 즐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연 등의 다양한 볼거리와 도서관, 쉼터,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 등이 들어선다. 전당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와 사람과의 어울림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큰 규모의 건물만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과거의 역사, 현재의 문화, 미래의 희망을 채워 진정한 문화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 높은 건물을 뿔뿔이 짓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문화가 숨 쉬고 사람이 숨 쉬는 건축이 필요하다.



광남종합목재건축재상사(주)

- 편백나무 인테리어 시공 전시장 2층
- 편백가구 전시장 4층
- 친환경 제품
 - 한국 편백, 일본 히노끼, 중국 황목, 미송, 루비 일체
 - 합트보드, 계교마는 분판, 운기서 트림
 - 친환경 흡음재, 친환경 단열재, 불연화력 내장 마감재, 목모보드
- 각종 내장재
 - 포송각재, 미송각재, 편판, 스키노움 의 내장재 일체
 - 방부목, 특수목, 남미산천연테크, 독일산 아이들(오일스테인)
- 협력사
 - 유진메이퍼물류, 필름합판, 문막, 울진, 태권목재 호남총판
 - KCC경희마루, 한솔경희마루, 동화마루 대리점
 - 리파즈, KCC 식고르드 총판
 - 레토파아 합성목재 호남총판
- 목조주택 & 아파트 리모델링 전문업체

★ 히트상품 : 편백입체블럭, 편백보도마감재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6회 KBC건축박람회 참가



편백나무가구 전문업체
광남종합목재건축재상사(주)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4-26
TEL : 062)652-2935, 2223 FAX : 062)651-5141

편백 인테리어 상담
H.P : 010-3609-4321
<http://www.oknwood.com>

건축문화사랑 창간 2주년 기념 발행인 및 편집위원 간담회

지역의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매체로 발전시켜 나가자!

- 지속적인 발행을 위한 자원 마련 방안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을 심도 있게 논의,
- 자기반성과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대안을 찾으며 미래를 향한 비전과 열정을 재확인

2009년 11월,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발간된 '건축문화사랑'이 어느새 2돌을 맞이했다. 자축과 긴장이 교차했던 첫 돌 때와는 달리 자성과 안정의 분위기 속에서 맞은 2주년이다.

그 분위기를 반영하여 첫 돌을 맞았던 지난해에는 외부의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조연을 듣기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하여 외부인사 좌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반면에 올해에는 자기반성과 조기정착을 목적으로 공동발행인 및 편집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0월 10일,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건축사회 회의실에서 박흥근 편집인의 사회로 진행된 '건축문화사랑 창간 2주년 기념 간담회'의 진지했던 열기를 지면으로 옮겨본다.



- 주 제 : 건축문화사랑 발전방향
- 소 제 : 창간 2주년의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조직, 예산, 편집방향)
- 사 회 : 박흥근 편집인

- 참석자 :
 - ▶ 공동발행인 및 각 건축사회 부회장
 - 광주 : 심상봉 회장, 강필서 부회장
 - 전남 : 윤문곤 회장, 조성분 부회장
 - 전북 : 이성엽 회장, 이정호 부회장

- ▶ 각지역 대표 편집위원
 - 광주 : 박흥근 편집인, 서재형 부편집인
 - 전남 : 박중호 건축사, 천경훈 건축사
 - 전북 : 양우현 건축사

* 발언자의 소속과 직책은 생략합니다.

박흥근 _ '건축문화사랑' 창간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간의 총체적인 부분에 대하여 내부적인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공동발행인인 3개 시·도 회장님을 비롯하여 부회장, 편집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허심탄회하게 그간의 평가와 향후 본지가 지향해야할 조직구성이나 예산확보, 편집방향에 대한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간 2주년의 의미와 평가,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

이성엽 _ 먼저, 우리 전라북도건축사회에서 이처럼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3개 시·도 건축사회가 건축문화의 창달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발간한 '건축문화사랑'이 어느덧 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지역의 건축문화를 알리고 대변하는 건축전문지로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윤문곤 _ 예산과 조직력의 한계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꾸준히 '건축문화사랑'을 발행했다는 것은 각 시·도 편집위원님들의 피나는 노력과 회원들의 성원이 만들어 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건축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위대한 도전의 성공이다' 평할 수 있겠습니다.

심상봉 _ 건축인들에게 '건축문화사랑'은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의미있는 일에 동참해 주신 모든 건축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건축문화사랑'이라는 공간을 통해 건축인이자 문화인, 그리고 이 시대 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을 과감히 내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행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 논의

이성엽 _ 일전에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문화신문'과 영남지역 건축사협회의 '건축사신문', 그리고 우리 호남권의 '건축문화사랑' 등 3개 신문을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발행예산의 70%를 차지하는 광고수주의 한계 때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신문이 지난 2년 동안 광고수주를 이룬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보다 앞서 12년의 역사를 가진 '건축사신문'과 6년의 역사를 가진 '건축문화신문'의 조직 및 예산 체계를 타산자적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윤문곤 _ 예산 때문에 신문을 통합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만의 특성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문을 통합하기보다는 어떻게 발행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신문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은 곧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지도 상승으로 이어져 광고주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상봉 _ 약 8천만원 정도의 연간 발행예산 중에서 광고수주 비중이 큰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건축문화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광고수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찾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발전기금을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현상설계 당선작이 소개되거나 홍보성 기사 등이 게재될 경우 발전기금 납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체 수익사업 개발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수교육 프로그램, 국내외 건축탐방 프로그램 등을 주관하여 창간의 목적과 수익창출을 함께 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재형 _ 발전기금에 대한 사항은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조직적인 역량 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원들의 구독료 납부도 예산확보 방안 중 하나?

박중호 _ 우리 신문은 3개 시·도 건축사회의 분담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구독료는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분담금은 모든 회원들의 위상을 높이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독료를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것도 예산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엽 _ 산술적으로는 우리 회원들이 1년에 8천원 정도를 부담하면, 광고수주 없이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시·도 건축사회가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회원들에게 구독료를 별도 징수하는 것은 이중 부담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윤문곤 _ 또 하나의 문제로 구독료를 내고 보아야 할 만큼 우리 신문의 위상이 정립되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구독료 징수는 그 이후에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심상봉 _ 저도 두 분 회장님들과 생각이 같으며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구독료 부분은 차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평가와 연성기사의 필요성도 각각 제기

조성문 _ 우리 신문의 영향력을 키우고 회원들의 참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유익한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신문은 이상향과 문화적인 측면에 너무 치우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건축사들이 실감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인허가와 관련된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 등의 콘텐츠도 발굴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비판없는 신문은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창간 2주년을 맞는 시점에서는 이런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정호 _ 저는 조성문 부회장의 의견과 달리 지금까지 '건축문화사랑'의 편집방향은 잘 잡았다고 봅니다. 발행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문이 비평가사를 게재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편안하게 읽힐 수 있는, 지극히 '연성기사를' 게재하여 구독자를 확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로 저는 그 어떤 신문보다도 수준이 높다는 평을 외부 인사로부터 제법 받았었습니다.

박중호 _ 비평의 필요성은 저희 편집위원들께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호남지역 원로건축사들을 대상으로 집필진을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안배, 시스템 구축, 소통 공간'도 필요해

강필서 _ '외형적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은 필자와 기사내용이 광주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3개 시·도 건축사회 공동발행의 의미를 퇴색케 할뿐 아니라 회원들의 단합과 관심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남과 전북지역의 편집위원님들과 사무국에서 적극 협조하여 지역별로 균등하게 기사가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천경훈 _ 건축사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기사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기사가 적지 않다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전라북도건축사회관 회의실 주최·주관: 건축문



'광고업체 애용 캠페인' · '발전기금 관례화'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기사제보 시스템 정비' ·
'참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영향력을 키워나가야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편집위원들이 더 많이 노력해야겠지만, 시·도 회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의 신속한 정보제공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간단한 정보라도 제공해 주신다면 기자나 편집위원들이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합니다.

양우현 _ '건축사라는 전문인으로서 자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건축문화사랑'이 주도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소통의 통로가 극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하여 회원 상호간의 정보공유는 물론이고 대중과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의 난관을 넘어 희망찬 미래를 향해

박홍근 _ 2년 6개월 전에 '건축문화사랑'을 기획하면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정기적인 발행이 가능할 것인가를 가장 걱정했었지만, 다행히 회장님들께서 큰 지원을 해주셨고 회원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든든한 배경이 있기에 오늘 제기된 문제점들도 충분히 극복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해야하는지, 미래를 향한 비전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엽 _ 사실 지역 업체의 대다수가 영세하기 때문에 광고수주가 쉽지 않습니다만, 관건은 광고효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술계 및 문화계 등과 연계되는 콘텐츠의 도입도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건축·예술·문화가 한데 어우러질 수 있다면 양적·질적 성장도 가능할 것이고, 건축사들이 설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할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지면의 지역안배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북의 편집위원을 추가 선임토록 하겠으며, 사무국에서도 각 분소와 상시 연락망을 갖추고 정보를 빨리 공유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윤문곤 _ 광고수주에 의한 예산확보와 회원들의 참여 고조 등을 위해서는 신문의 영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에는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스스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즉, 자양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문화사랑'을 영향력 있는 신문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구독료 납부 등 우리 스스로가 자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 위주의 편집방향은 당분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한 사회성은 취약한 기반까지 흔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상봉 _ 주 수입원인 광고수주를 위해서는 광고효과가 높아야 하고,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우리 회원들이 광고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화상담도 하고 이왕이면 이용도 해주신다면 업체는 광고효과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건축분야의 광고수주는 어렵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회원들의 주머니를 털지 않고도 우리 신문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노력과 더불어 현상설계나 터키 당선작 등의 게재로 간접광고 효과를 본 회원들의 발전기금 납부를 관례화시킨다면 예산확보에는 우리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 체험, 여행 등 건축문화사랑 자체사업은 수익보다 인지도 증진과 소통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비판은 지양하더라도 건축적인 비평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나 큰 사무소에 대한 소식도 좋지만, 사소하더라도 정감 넘치는 회원의 소식이 다뤄진다면 우리 지



역 건축사 한사람 한사람이 관심을 갖고 본지를 구독함으로써 참여의식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고업체 애용 캠페인' · '발전기금 관례화'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기사제보 시스템 정비' · '참여의식을 제고할 수 있
는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영향력을 키워나가야

조성문 _ 심상봉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왕이면 광고업체를 애용하고, 우리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광고수주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점은 모든 회원들에게 동참을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전남지역에서도 각 지역 분소를 활용하여 기사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서 _ 현재까지의 신문 광고업체를 보면 대부분 메이저급이 아닌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광고효과에 대한 기대가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의 관심과 애용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건축사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해서라도 메이저급 업체를 대상으로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우겠습니다. 이 점은 협회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정호 _ 전북지역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우현 건축사님도 계시지만 콘텐츠 확보부이나 광고수주 등 전북도회가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북도회가 지원하고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과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찬사와 격려의 전화도 많이 하도록 유도하여 우리 신문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일 필요도 있습니다.

서재형 _ 앞서 언급하셨던 구독료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시·도 회장님들을 모시고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광고수주 대부분을 광주건축사회에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남·전북도회에서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순번을 정해 의무적으로 광고를 수주하는 방식까지 동원하여 본지를 지원해 주고 계시는 광주건축사회 임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향후 다양한 콘텐츠 확보 및 대중들과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학계의 참여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마무리

이상엽 _ 이처럼 의미 있는 자리를 위해 전북협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리를 연2회 정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 회장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셔서 더욱 알찬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윤문곤 _ 오늘 이 자리는 건축문화사랑에 대해 더 많은 애착과 열정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의미 있고 유익했습니다. 이 마음이 모든 회원들에 전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봉 _ 구독료 부분을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건축문화사랑 발전을 위해 3개 시·도 건축사회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편집위원들의 수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박홍근 _ 저희 '건축문화사랑'의 발전을 위해 간담회에 참여해주신 발행인과 편집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하신 좋은 고견은 신문 발행에 반영하여,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건축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건축문화사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록 : 광국국 전담기자 gjkira@empal.com
정리 : 서재형 건축사기자 archiseo@lycos.co.kr

디자인 코리아!
녹색성장의 기수!
친환경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대한건축사협회

2nd

축하합니다.

건축문화 사랑 창간2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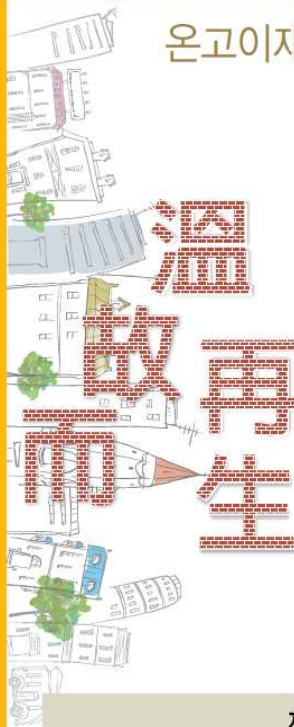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제8회 광주건축· 도시문화제

11월 3일(목) ~ 11월 6일(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개막식/ 3일(목) 오전 11시 1층 전시실



온고이재생(溫故而再生) =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 재생(再生)
=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만든다.

제8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행사 안내

11월 2일(수)	• 건축인의 밤 오후 6시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서구 치평동)
• 개막식	3일(목) 오전 11시 1층 전시실
• 전시행사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품 전시회, 해외 건축전, 광주·후쿠오카 건축교류전, 대학생 우수 건축작품전
11월 3일(목) ~ 11월 6일(일)	• 시민, 학생 참여행사
• 건축문화 심포지엄	3일(목) 오후 4시 2층 세미나실 강사: 조성룡 건축사(광주불리 참여 작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광주근대건축작품전
• 건축민원상담	건축에 관한 지식 및 정보 공유
• 건축취업상담코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담 및 알선
• 건축체험교실	과자집 만들기 등 모형 만들기, 퍼즐조립
• 도심재생공모전	도심재생공모전 수상작 전시
• 건축지도 발간	전국최초로 제작된 광주건축지도 신간 발행
• 특별행사	광주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 작품전시, 광주시민회관 현상공모 당선작 전시,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수상작 전시, 경관 취약지 개선 사업자료 전시회 정애없는 세상만들기

제15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품 전시회

광주광역시 건축상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난 1989년부터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을 설계한 건축사와 시공사를 선정·시상하는 제도로, 이번 제15회 건축상은 지난 9월부터 한 달간 작품을 모집·접수하였고, 대학교수, 언론인, 디자인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금상에 강연심 건축사(백두 건축사사무소)의 '큰 빛 자연생태 어린이집', 은상에 정태호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영일 필)의 '한국광기술원 LED조명실증센터, 김기준 건축사(주)맥스유엔지너링 건축사사무소' 남구 도시보건지소, 동상에 강필서 건축사(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월봉서원 교육관 및 체합관', 은철영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휴먼스페이스) '해피뷰 삼성메디타워, 인천수 건축사(도솔 건축사사무소) '진월동 아이안과 빌딩'가 선정되었다.

11월 2일 건축인의 밤 행사에서 시상식이 진행되며 선정작품은 문화제기간에 전시된다.



금 상 큰 빛 자연생태 어린이집

설계자 : 백두 건축사사무소 / 강연심
시공자 : (주)정동건설
대지위치 : 광산구 박호동 537외 2



은 상 한국광기술원 LED조명실증센터

설계자 : (주)건축사사무소 영일·필 / 정태호
시공자 : 예원종합건설(주)
대지위치 : 북구 건국동 1110-7



은 상 남구 도시보건지소

설계자 : (주)맥스유엔지너링 / 김기준
시공자 : 조영훈
대지위치 : 남구 주월동 974-180



동 상 월봉서원 교육관 및 체합관

설계자 :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 강필서
시공자 : 조영석
대지위치 : 광산구 광산동 454-12외 5



동 상 해피뷰 삼성메디타워

설계자 : (주)건축사사무소 휴먼스페이스 / 은철영
시공자 : (주)아인스건설
대지위치 : 동구 학동 868-4



동 상 진월동 아이안과 빌딩

설계자 : 도솔 건축사사무소 / 인천수
시공자 : 현호종합건설(주)
대지위치 : 남구 진월동 294-5외 2

건축인의 밤 전야제 행사 11월 2일 오후 6시



제8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전야제 행사는 '건축인의 밤'은 광주 건축 관계자를 비롯한 정관계 인사 등이 대거 참석하여 광주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단합하는 행사이다. 이번 건축인의 밤은 문화제 개막전날 11월 2일 오후 6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개최되며, 이미 광주시 강은태 시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교수, 광주지역 건축사, 전국 시도 건축사회회장,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을 확정하였다.

이날 행사를 총괄하는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남승진 사무총장은 "이번 건축인의 밤은 '자랑스런 건축인-최문화 건축사' 선정과 더불어 광주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도심재생전국공모전 시상'도 함께 진행될 예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는 맞이하는 '광주건축·도시문화제'가 '온고이재생(溫故而再生)'이란 주제로 오는 11월 3일부터 6일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처음 문화제를 기획한 2003년 1회 때, 몇 개의 소규모 단위사업으로 시작한 문화제가 이제는 대단위 세부행사를 진행하는 국제규모의 건축 축제로 발전하였다.

이는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단체 조직들이 이 지역의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합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의 조직인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건축단체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건축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와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시지회, 이렇게 3개 조직이 결성하여 만든 단체이다.

이 시대의 지성인인 교수 집단과 전문인인 건축사 집단이 모여 광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광주시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고 있다.

이들이 창조하려는 광주는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이번 '제8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관람을 적극 권유해본다.

ARCHITECTURE & URBAN CULTURE

해외 건축전



해외 우수건축물 사례를 통해 광주건축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이번 해외 건축전에 프랑스를 비롯한, 독일, 노르웨이, 중국, 일본 등 우수건축 작품 5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문화제가 국제규모의 건축전으로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광주·후쿠오카 건축교류전



광주건축사회는 JIA 후쿠오카회와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양국 간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건축교류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한일교류 10년사가 담긴 '교류는 미래를 향한 도전'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광주건축사회에서 지난 7월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출품작품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한 20여점의 우수작품과 일본 JIA 후쿠오카회 회원들의 우수작품 20여점이 함께 전시된다.

대학생 우수 건축작품전



광주·전남지역 4,5년제 건축 관련학과 대학생들이 졸업작품전에 출품하는 작품 중,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하는 대학생 우수 건축작품전에 이 지역 6개 대학, 40여점의 우수 작품이 전시된다.

앞으로 이 지역 건축문화를 선도할 예비 건축사들의 작품을 관람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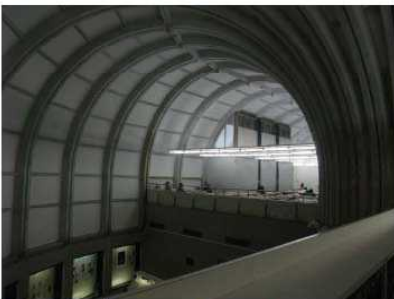
건축·도시 그림그리기대회 입상 작품전시

건축·도시 사진공모전과 함께 그림그리기 대회 입상작도 발표되었다. 유치원, 초등학생, 중등생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의 중요한 요소인 건축물, 구조물, 조경, 골목길에 대한 미적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올해 6월부터 대회를 알리는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총500여점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이번 그림그리기 대회의 중등부 최고상은 신창중학교 박주아 학생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초등부 고학년 최고상은 광림초등학교 최유진 학생작품이, 초등부 저학년 최고상은 신암초등학교 김소윤 학생 작품이, 유치부 금상에는 임세연 어린이와 장지원 어린이의 작품이 각각 선정되었다. 이의 입상작품들 또한 문화제 기간에 전시된다.

건축·사진 공모전 대회 입상 작품전시

시민학생 참여 프로그램으로 건축·사진 공모전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지난 10월 초에 입상작을 발표하였다. 이번 사진 공모전은 아름다운 도시 경관(건축물+구조물+조경+골목길)이란 내용으로 총50여점이 넘는 작품이 응모되었으며, 이중 최우수상은 안형근 출품자의 '침묵-도서관'이 선정되었고, 우수상은 조규재 출품자의 '더 클래식 500', 이철현 출품자의 '희망의 문'이 선정되었다. 이외에 다수의 장려상과 입선작이 선정되었으며 이의 입상작들은 문화제 행사기간 동안 전시된다.



적우수상 안형근 / 침묵-도서관

- 시상일시 : 11. 5/토/ 오전 11시
- 시상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전시실



중등부 적고상 신창중 / 박주아

- 시상일시 : 11. 5/토/ 오후 3시
- 시상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전시실



소등부 (고)적고상 광양초 / 최유진



소등부 (저)적고상 신암초 / 김소윤



우수상 이철현 / 희망의 문



우수상 조규재 / 더 클래식 500



유치부 금상 장지원



유치부 금상 임세연

건축문화 심포지엄 (11월 3일 오후 4시 조성룡 건축사 강연)



문화제 행사일환인 건축문화 심포지엄 두 번째 강연이 개막 당일인 3일 오후 4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초청 강연은 '삶을 위한 장소만들기'란 주제로 (주)건축사사무소 조성룡도시건축 대표이자 광주폴리 참여작가인 조성룡 건축사의 강연이 진행된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19일에는 '테라노바 포함프로젝트'라는 주제로 경상북도 포항시 시청건축가인 도창환 건축사의 강연과 '영국의 주택디자인과 단지재생'이란 주제로 영국 뉴카슬대학 건축학과 Peter Kellett 교수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한편 개막 당일 진행되는 강연은 조성룡 건축사가 직접 자료를 제작하여 발표할 예정이어서 건축 관계자들을 비롯한 많은 청강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1 광주도심재생공모전 입상작 전시



2011년 광주도심재생공모전은 광주 동명동 동명 3구역을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도시주거디자인으로 탈바꿈시키고자 광주 시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아낌있게 기획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에 전국 건축 관련 대학생들을 비롯한 일반 시민, 건축사 등이 많은 관심을 보이며 접수하였고, 1차 내부심사와 2차 공개심사를 거쳐 입상작을 선정하였다.

상금 500만원의 대상작에는 아주대학교 대학원 건축학부 김예림, 이진영 학생의 '도시를 깨우다'가 선정되었다. 11월 2일 전자제 행사로 열리는 '건축인의 밤'에서 대상을 비롯한 입상자들에게 시상할 예정이며, 선정 작품들은 문화제 기간에 전시되고 책자로도 발간된다.



광주근대건축작품전

지난 몇 년간 우리 지역 건축계에서는 근대 건축물을 보존하고자 많은 노력을 펼쳤으며, 그에 대한 결과로 올 초부터 이 지역 건축 관련 학과 교수 및 건축사 등 전문가들과 광주시가 근대건축물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광주 지역 100여 점의 근대건축작품이 사진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건축체험교실

어린이들에게 건축에 관한 꿈을 키워주고자 마련한 건축체험교실은 과거나 종이로 내가 살고 싶은 집 만들기와, 건축물을 퍼즐로 완성하는 놀이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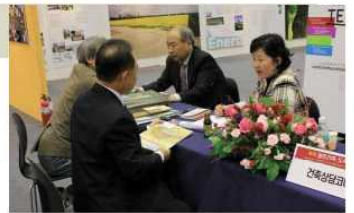
그림 그리기대회 시상식이 진행되는 11월 5일에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어른들과 아이가 함께 추억을 만드는 즐거운 자리가 될 것이다.



건축민원상담 및 건축취업상담코너

건축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여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건축문화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의미를 둔 건축민원상담은, 여성건축사들이 중심이 되어 건축법규 계획, 시공 및 민원에 대해 상담한다.

또한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자 건축취업상담코너를 별도로 마련하여 많은 청년들의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



2011 자랑스런 건축인에 최춘화 건축사 추대



최춘화 건축사(1928~2001)는 전라남도 강진 출생으로 목포공업학교 건축과를 졸업하였다.

그는 전라남도교육청, 광주시교육위원, 화순 군청, 전라남도청, 완도군청 건설과장을 역임한 후, 1970년 성림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였다.

주요작품으로는, 광주 진흥중·고등학교(구), 삼호축산, 광주 대성교회, 광주 대성초등학교, 송정 중앙교회 생활관, 농업협동조합 평동지점, 광주 광산구 의료보형조합 등이 있다.

최춘화 건축사는 1975년 제 7대 전남건축사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전남, 광주의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건축과 인간의 소통을 강조하였으며, 건축인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였던 분이었다.

이에 광주건축문화제 위원회에서는 최춘화 건축사의 광주, 전남건축에 이바지한 공로를 존경해, 2011 올해의 자랑스런 건축인으로 추대하였다.

특별행사

이외 특별행사로 광주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 작품 전시와 광주시민회관 현상공모 당선작 전시,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수상작 전시, 경관취약지 개선 사업자료 전시, 장애없는 세상만들기 전시 등이 진행될 예정으로 건축을 비롯한 문화, 사회 등 여러 분야의 전시물이 기획되었다.



광주건축지도 신간발간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에서는 몇 년 전 건축에 대한 일반시민의 관심제고와 광주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발간한 건축지도를 일부 건축물들을 추가하고 보완하여 신판으로 발간한다.

약 5,000부를 발간하여 이번 문화제를 찾는 일반시민들에게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p>(주)현대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조연성</p> <p>광주 북구 신안동 133-2 2층 Tel. 062-528-0101 Fax. 062-528-3163</p>	<p>초석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정상채</p> <p>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el. 062-527-8042 Fax. 062-512-804</p>	<p>CNS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김기수</p> <p>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80-2 Tel. 063-226-8855 Fax. 0502-226-9090</p>	<p>(주)라인종합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김남중</p> <p>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547-101 Tel. 063-274-3647 Fax. 063-274-3671</p>	<p>미래종합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김성수</p> <p>군산시 조촌동 744-11 Tel. 063-452-6171 Fax. 063-452-6175</p>
<p>연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김형연</p> <p>광주 서구 치평동 1210-7 3층 Tel. 062-374-1201 Fax. 062-374-1202</p>	<p>선택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김곤</p> <p>광주 북구 동림동 274-2 Tel. 062-512-6900 Fax. 062-513-3576</p>	<p>(주)그룹에이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박동준</p> <p>광주 동구 동명동 200-109 Tel. 062-366-8404 Fax. 062-366-8406</p>	<p>우리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문창식</p> <p>광주 서구 쌍촌동 1281-7 Tel. 062-511-2500 Fax. 062-511-2505</p>	<p>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장정수</p> <p>광주 서구 치평동 1208 골든빌 310호 Tel. 062-373-3131 Fax. 062-384-3534</p>
<p>태영종합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김명수</p> <p>광주 서구 용암동 1189 2층 Tel. 062-654-8534 Fax. 062-654-8536</p>	<p>(주)나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김민국</p> <p>광주 남구 월산동 979-7 Tel. 062-369-3592 Fax. 062-369-3595</p>	<p>뉴텍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김선채</p> <p>광주 서구 능성동 631-33 Tel. 062-371-3405 Fax. 062-371-3407</p>	<p>미주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김현중</p> <p>광주 서구 치평동 1202-2 핸드피어 1402호 Tel. 062-454-8200 Fax. 062-454-8201</p>	<p>(주)승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문강욱</p> <p>광주 북구 용봉동 1414-3 Tel. 062-526-8660 Fax. 062-526-8663</p>
<p>(주)일우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안길전</p> <p>광주 동구 금동211-10 코밀빌딩 6층 Tel. 062-233-7151 Fax. 062-233-7153</p>	<p>(주)도솔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안천수</p> <p>광주 광산구 신창동 1254-7 5층 Tel. 062-672-2230 Fax. 062-672-2232</p>	<p>이영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이영문</p> <p>광주 동구 수7동 21-3번지 고문하이츠 2층 202호 Tel. 062-515-0432 Fax. 062-515-0436</p>	<p>건축사사무소 서로</p> <p>건축사 정광민</p> <p>광주 북구 입동 94-93 Tel. 062-512-2125 Fax. 062-527-4720</p>	<p>건축사사무소 시명</p> <p>건축사 차은영</p> <p>광주 서구 화정동 407-8 국민생활관 202호 Tel. 062-362-0544 Fax. 062-362-0545</p>



2011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녹색건축과 미래건축의 표본을 보여준다

— 5일간, 5,000여 명의 관람객 기록하며 차기 문화제에 대한 기대감 높여

지난 10월 31일, 제12회 전북건축문화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2011 전라북도 건축문화제'가 5일간 전북도청과 전주시 디지털 독립영화관 일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전북건축문화제는 전라북도도와 전북지역 건축 3단체(전라북도건축사회, 대한건축학회전북지회, 한국건축가협회전북지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도내건축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계·시공사례발표, 학술발표회, 건축포럼, 건축영화제 등을 진행하였다.

제12회 전북 건축문화상 시상 및 전시



전라북도도가 주최하고 전북건축사회가 주관한 '제12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시상식이 지난 10월 31일 도청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건축문화상 영예의 대상은 계획작품부문 학생부에 우석대학교 건축인테리어 디자인학과 오시은, 장진욱 학생의 공동작품인 'vitality of the see'이, 사용승인 공공부문에는 (주)길 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가 설계한 '전주대학교 스타 센터'가 차지하였다.

대상 수상자 외에도 계획작품부문 14점과 사용승인부문 공공·주거·비주거 5점 등 22작품 입상 출품자에게 시상하였으며, 이의 수상작들을 포함한 응모작들은 전북도청 1층 기획전시실 및 로비에서 전시되었다.

국제건축작품 전시 및 시회전



개막일인 31일부터 폐막일까지 전북도청 1층 기획전시실 및 로비에서 전북건축사 회원 작품 외 중국·일본 건축가 작품, 세계여성건축가, 전북출향 건축가 작품 등 총 150여 점을 전시하였다. 작년에 비해 해외 건축작품 전시가 늘어 관람객들에게 국제적인 전시였다는 평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동 장소에서 전북건축회원들의 그림, 사진, 서예 등 15점 작품의 시화전도 진행되었다.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 학술발표회와 건축포럼



건축문화제 폐막일인 11월 4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다양한 연구논문이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되었고, 환경이란 공통 주제로 건축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오전에 열린 학술발표회는 관계기관 공무원들을 비롯한 건축사, 일반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SMP 송경규 대표의 'BIM 기반의 3D작업을 활용한 설계 및 예산 관리 방안'이란 주제의 강연이 진행되었고, 전북대학교 장홍석 대학원생의 '시멘트 콘크리트의 수화가스 특성과 유해성 평가와 군산대학교 최지훈 대학원생의 '강성변화와 파랑주기에 따른 플로팅구조물, 원광대학교 안선호 강사의 '조선 후기 강화동 어진 봉안 시설에 관한 고찰', 원광대학교 오민수 대학원생의 'ALC소재의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오후에 열린 건축포럼에는 전북발전연구원 장성화 연구원의 '도시환경'이란 주제와 전북대학교 김광철 교수의 '실내환경', 전북환경운동연합 김진태 씨의 '실외환경'의 주제가 발표되었으며, 그 내용을 대상으로 군산대학교 문창호 교수와 전주대학교 김상진 교수, (유)건축사사무소 이상건축 조창호 건축사가 열린 토론을 벌였다.

2011 건축영화제 진행



11월 2일에는 전주시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1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건축영화제를 개막하고, '마이 아키텍트'와 '성가신 이웃' 등 2편의 영화를 상영하였다.

작년에 이어 진행된 건축영화제는 일반인들에게 영화를 통해 건축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이다.

전라북도건축사회 진재민 과장은 "일반 도민들이 쉽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작년 상영장소에서 전주시 디지털 독립영화관으로 옮긴 것이 이번 건축영화제의 비약적인 성공을 가져왔다"며 "내년 건축영화제에는 더 많은 도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상영 시간을 늘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 진행된 2011 전라북도 건축문화제에 건축인들을 비롯한 공무원, 일반도민 등 5,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이번 문화제는 작년에 비해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며 대중들에게 건축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다는 평가이다. 내년에도 있을 2012 전라북도 건축문화제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기대해 본다.

아림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성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192-5 Tel. 063-232-1910 Fax. 063-232-1920	건축사사무소 건인 건축사 이정호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35-10 Tel. 063-227-3073 Fax. 063-227-3074	건축사사무소 가원 건축사 김주식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92-14 Tel. 063-226-0418 Fax. 063-225-9031	건원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종용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779-5 Tel. 063-228-4983 Fax. 063-228-4984	건축사사무소 대지 건축사 안영목 익산시 남중동 76-21 Tel. 063-852-3123 Fax. 063-852-3125
(주)길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길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405-3 Tel. 063-276-7200 Fax. 063-276-7201	이동인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동인 정읍시 수성동 620-2 Tel. 063-535-2992 Fax. 063-533-7600	두산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두필 군산시 조촌동 868-16 Tel. 063-452-6583 Fax. 063-452-6582	엔드림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준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92-14 Tel. 063-222-4426 Fax. 063-225-9031	예인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태원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34-15 Tel. 063-286-8094 Fax. 063-286-8095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건축사 추원호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60-2 Tel. 063-278-8783 Fax. 063-278-8785	한진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한병진 남원시 도룡동 538-2 Tel. 063-631-2223 Fax. 063-631-2224	수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현주익 익산시 영동동 339-72 Tel. 063-842-0350 Fax. 063-842-9147	세광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진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710-3 Tel. 063-251-1407 Fax. 063-251-1409	금호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임순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94-7 Tel. 063-224-1992 Fax. 063-226-2779

세계의 신도시 3부

간척지의 중심도시 및 주도 - 렐리슈타트, 세계안보정책에 의한 신도시 - 로스앨레모스

City of Lelystad

렐리슈타트는 네덜란드(Netherlands) 중부 플레볼란트(Flevoland)주 중서부 내해 동쪽에 접해 있는 신도시이며, 로스앨레모스는 미국 남서부 뉴멕시코(New Mexico)주 북부 로스앨레모스 카운티 중동부 주도(州都)인 샌타페이(Santa Fe)시 도심에서 북서쪽으로 약 56.0km 지점에 위치한 CDP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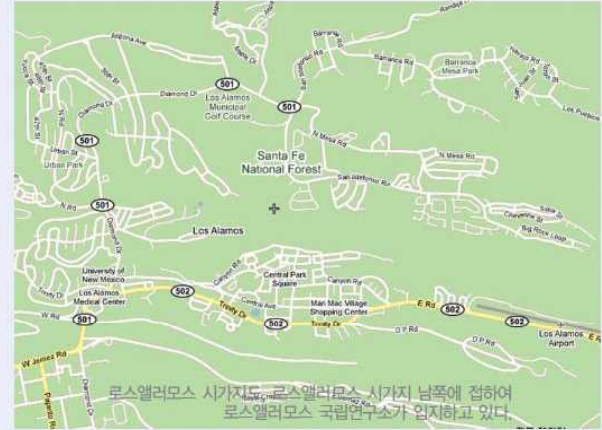
2011년 4월호부터 건축과 도시계획이란 지면을 개설하여 8월호까지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김현숙 교수의 전라북도 전주시 도시계획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지난 9월호 부터는 세계 여러 신도시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도시계획 전문가인 호남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도영준 교수의 원고를 연재·기획하였다.



렐리슈타트/Municipality of Lelystad / 간척지의 중심도시 및 주도

네덜란드(Netherlands) 중부 플레볼란트(Flevoland)주 중서부 내해 동쪽에 접해 있는 신도시이며, 주도(州都)로 행정구역 면적 약 765.4km²(수역 531.3km²)에 인구는 약 73천 명(2008년)이다. 도시계획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내해 : 네덜란드 북서부 방조제로 막혀 있는 넓은 바닷을 호수로 이름은 아이셀(IJssel)호이다.
- ① 신도시를 포함한 이 지역은 원래 농지확장을 위한 자위더르²⁾ 간척사업으로 시행되었다.
- (2) 자위더르간척사업 : IJsselmeerpolders/Zuiderzee Works
네덜란드 자위더르해의 간척사업으로 방조제의 길이는 새만금보다 500m짧은 32.5km이다. 이 간척사업은 국안합의를 바탕으로 불과 3년(1929-1932)만에 방조를 끝냈다고 한다.
- ②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렐리슈타트 남서쪽에 위치한 수도인 암스테르담시의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지 공급을 위해 간척지 내에는 2개 신도시³⁾가 개발되었으며, 이 중 하나가 렐리슈타트이다.
- (3) 2개 신도시 : Oostelijk Flevoland, Zuidelijk Flevoland로 1970년대 이후에 Oostelijk Flevoland(동쪽의 간척지)는 주도인 렐리슈타트, Zuidelijk Flevoland(남쪽의 간척지)는 알메르(Almere)시가 되었다.
- ③ 개발초기 이곳 주민의 대부분은 방조제 건설을 위해 동원되었던 건설노동자, 토목기술자, 관리자 등이었다.
- ④ 1967년 독립적인 행정구역(시)이 되었으며, 1986년 주도가 되었다.
- ⑤ "렐리슈타트"라고 번역되는 렐리슈타트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토목기술자인 코넬리스 렐리⁴⁾의 이름을 인용하였다.
- ⑥ 도시의 해수면보다 약 5.0m 정도 낮다.



로스앨레모스/CDP of Los Alamos / 세계안보정책에 의한 신도시

미국 남서부 뉴멕시코(New Mexico)주 북부 로스앨레모스 카운티 중동부 주도(州都)인 샌타페이(Santa Fe)시 도심에서 북서쪽으로 약 56.0km 지점에 위치한 CDP지역¹⁾으로 면적 약 28.1km²에 인구는 약 12천 명(2001년)이며, 도시계획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CDP : Census Designated Place/국세조사지정구역. 미국 통계청에서 통계목적상 설정된 지역으로 일반적인 행정구역과는 다르다. 즉, 하나의 행정구역이나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지정할 수 있으며, CDP가 성장하여 독립적인 행정구역(시)이 되는 경우가 많다.
- ①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한 국제안보정책인 맨해튼프로젝트²⁾ 일환으로 건설된 연구소³⁾를 지원하는 신도시⁴⁾다.
- (2) 맨해튼프로젝트 : Manhattan Project.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 영국, 캐나다가 공동으로 수행한 핵무기개발계획의 암호명이다. 이 프로젝트에 의해 1945년 세 개의 핵폭탄을 설계 제조 폭발시켰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뉴멕시코주에서 최초로 실험하였고, 두 번째는 일본의 히로시마(廣島)시에 투하, 세 번째도 일본의 나가사키(長崎)시에 투하하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원자폭탄 투하로 일본은 항복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결과가 되었다.
- (3) 연구소 : 당시는 원자폭탄 제조 중심의 연구소였으나 지금은 국립 연구소의 하나인 에너지성 산하 로스앨레모스국립연구소로 변경되었다.
- (4) 신도시 : Secret Planned Community
- ② 도시에 대한 모든 사항은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때(1945년 8월 6일)까지 극비로 하였다.
- ③ 당시 이곳에 거주하는 연구원 및 가족, 주민과 그 밖에 작업하는 사람들의 외부와의 통신은 군부대에서 철저히 검열하였다.
- ④ 해발 약 2,231.0m의 지형조건과 연구소의 안보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가지는 철저히 분산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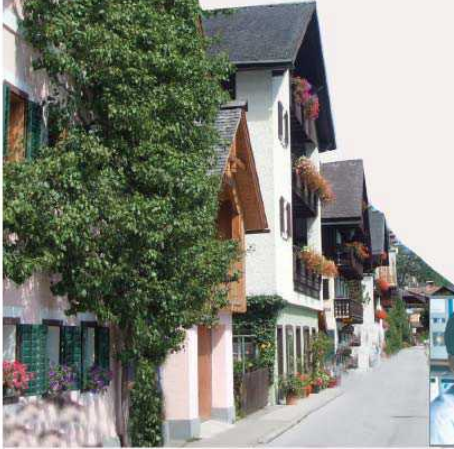
로스앨레모스를 비롯하여 맨해튼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된 신도시에는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주의 딥리버(Dep River), 미국 워싱턴(Washington)주의 리치랜드(Richland), 테네시(Tennessee)주의 오크리지(Oak Ridge) 등이 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세계 도시매력의 원천을 가다

열번째 이야기 - 지상의 낙원,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조용준 교수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yjcho@chosun.ac.kr

- 제1화 ~ 제4화 : 개요, 로마, 프라하, 부다페스트(10년 10월호~11년 1월호)
- 제5화 : 음악의 도시 '비엔나' (2011년 2월호)
- 제6화 : 물위의 도시 '베네치아' (2011년 3월호)
- 제7화 : 꽃의 도시 '피렌체' (2011년 4월호)
- 제8화 : 모차르트의 도시 '잘츠부르크' (2011년 7월호)
- 제9화 : 도시설계 모델의 창조도시 '바르셀로나' (2011년 9월호)

Austria Hallstatt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 여가시간의 증대와 함께 국경을 넘는 교류와 여행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20세기말부터 관광은 도시 활력을 만드는 원천이 되기 시작했다. 특히 부유층의 전유물이던 여행이 일반시민들에게도 보편화되고 여행목적도 일상생활에서 해방, 휴식, 가족과의 단란, 새로운 것의 체험 등으로 바뀌면서 그간의 로마나 파리처럼 장엄한 역사적 이력을 갖고 있는 역사 도시 중심에서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는 작은 마을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물적 자원이 투자된 산업사회에서 지역자체가 가진 상품과 환경이 도시 경쟁력이 되는 창조사회로 변화된 것과도 맥을 함께 하는 것인데, 음식, 경관,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슬로우 시티도 이와 맥을 함께 한다. 근래 유럽공동체 국가들이 "21세기는 글로벌한 경제만으로는 도시사회의 안전이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도시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에 뿌리 내리고 있는 소규모 비즈니스군의 개발에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는 선언도 이와 맥을 함께 한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마을이 할슈타트이다.



할슈타트 마을은 다호슈타인 산맥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다.



금방이라도 호수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건축물

황제소금이라는 의미의 '할슈타트'

할슈타트는 오스트리아의 빈과 잘츠부르크 사이에 있는 70여개가 넘는 호수와 알프스의 산지락의 장크트 길겐, 장크트 볼프강, 바트 이슬, 할슈타트, 그문덴 등 마을들로 구성되어 있는 '잘츠컴머구트'라는 지역의 한 마을이다. 황제소금이라는 의미의 이 마을은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조세프 1세가 지상낙원이라고 했을 만큼 아름다운 지역이다. 옛날에는 바다가 먼 이 지역에서 소금을 생산했던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고, 지금은 여름에 해양 스포츠와 골프, 겨울에는 스키로 잘 알려진 휴양지이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무대로도 유명하고, 모차르트 어머니의 출생지이자, 그의 여동생 난쟁이 결혼한 후에 살았던 곳이기도 하다.

이중에서 잘츠컴머구트의 진주라고 불리고 있는 할슈타트는 역사적 이력이나 건축적 가치를 자랑하는 건축물이나 장소를 갖고 있지 않은 그저 평범한 마을이다. 그러나 그네들 스스로가 소중히 하면서 즐기는 소박한 삶 문화는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 드리면서 마을의 경제적 활력을 만들고 있다. 광고나 드라마에도 종종 등장하는 이 마을은 앞쪽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넓게 펼쳐 있고, 뒤쪽에는 알프스북부 산맥에 해당되는 해발 3800미터의 다호슈타인 산맥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배산임수형의 마을이다.

처음 방문한 사람들도 간직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로움과 평화로운 물론, 인간적인 순박함을 금방 느낄 수 있는 마을이다. 거기에 개개 이익의 극대화와 기계문명에 익숙한 산업사회에서도 망가지지 않고,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신기하기까지 하다. 1997년에는 유네스코가 B.C 2000년 전에 개발된 소금 광산과 B.C 1000-500년에 유럽최초의 철기문화와 독특한 풍경을 인정하여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도 하였다. 할슈타트는 잘츠부르크나 빈에서 기차나 버스를 타고 가거나 잘츠부르크에서 사운드 오브 뮤직투어에 참가하여 갈 수 있는데, 간이역에서 내려서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선착장에서 조그만한 배를 타고 약 15분 정도 호수를 가로질러 가게 되면 도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개되는 풍경은 흡사 몇세기 전으로 온 것 같은 착각이 들만큼 아주 이색적이고 독특 하다. 마을의 왼쪽에는 넘어지게 되면 금방이라도 호수에 빠질 것 같은 생각마저 드는 급경사지에 집단을 이루고 있는 목재주택들과 그 앞 호수위에 떠있는 보트들을 품고 있는 목재건축물들이 어우러져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우리네의 달동네가 생각나기도 하고, 깊은 산속에 뛰어들어 놓여져 있는 빌통이 생각나기도 하는 이 경사지의 전통주택들은 쉽지 않았던 그 먼 옛날의 삶을 어렵게 짐작하게 하지만, 긴 세월 풍상에 견디어 온 모습은 흡사 깊은 산속에서 오랜 세월을 고고하게 도를 닦아온 내공 깊은 무인의 무게감이 느껴진다.

보이는 대로 즐기고 느끼는 '풍경의 마을'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마을 풍경은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착장에 도착하여 몇 걸음만 옮기면 호수가를 따라서 긴 선형으로 뻗어있는 풍경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 지도를 펼쳐

볼 필요도 없고, 역사물에 대한 기록에 열중할 필요도 없이 그저 발 닿는 대로 천천히 걸으며 마을 전체를 관광할 수 있어서 좋다. 굳이 공공건물을 찾으려고 하면 선착장 오른쪽 골목길의 끝 가까이에 있는 광장이나 왼쪽에 있는 우체국, 고고학 박물관, 그리고 보트대여소 정도이다. 줄지어 관광을 기다리거나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느껴지는 궁전이나 성당 대신에, 보이는 대로 그냥 즐기고, 가슴에 와 닿는 대로 그냥 느끼면 되는 그런 풍경의 마을이다.

골목길 어디서인가 자동차가 불췌 튀어 나올 것 같은 막연한 불안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이정표가 되는 표식을 눈 여겨 보지 않아도 길을 잃을 염려도 없다. 호수를 향해 서 있는 예쁜 모습의 레스토랑과 그 앞의 여유로움이 넘치는 테라스, 아름다운 화분을 걸어 놓거나 덩굴덩굴이 건물전면을 덮고 있는 삼각형의 목재지붕을 갖고 있는 작은 호텔, 카페, 음식점, 상점들, 그리고 호수에서 조금 떨어진 뒤쪽 언덕의 초원위에 자유스럽게 서 있으면서 호수를 향한 여유와 낭만을 즐기는 주택들이 만들어낸 풍경은 오랫동안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특히 창가에 걸어 놓은 유난히 빨간 화분과 건물전면을 반쯤 덮은 담쟁덩굴은 참으로 아름다운 담다는 생각과 함께 마을풍경을 높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되고 있다.

건다가 다리가 아프면 아무데나 걸터앉아서 지나가는 관광객을 구경삼아 쉬어도 좋고, 색다른 상점이나 카페가 있으면, 들어가서 구경을 하거나 차 한잔을 마셔도 좋은 그런 마을이다. 지나가는 사람들과는 어깨가 닿을 것 같이 좁고 깊은 골목길에서는 지나치는 사람과 눈인사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냥 갈 수 없는 정다움을 주는 골목길 풍경은 그 감수근 선생이 같은 좁은골목 좋더라는 말이 생각나게 한다. 골목길을 한참 헤매다 보면 할슈타트 광장이라는 작은 광장을 만나게 된다.

광장은 도시 공동체 형성을 위한 틀로서 이벤트, 참여, 기억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을 하나로 묶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자, 세대가 중첩되고, 문화가 중첩되며, 시대가 중첩되는 도시문화를 표현하는 장인데, 할슈타트 광장은 규모가 크지 않아서 동네 마당 같은 느낌이다. 가운데에 작은 조각상이 있는 광장 주변에는 웅장한 건물이나, 거창한 이벤트 대신에 아름다운 작은 상점과 주택들이 어우러져 표현할 수 없는 소박함과 정다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긴 세월 동안 함께 살아왔을 것 같은 사람들이 파라솔이 달린 낡은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모습은 더욱 친근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주변나라들의 농촌지역에서 보았던 붉은 지붕의 마을들과는 전혀 다른 이러한 풍경 때문인지, 항상 빈이나 잘츠부르크 등에서 자전거 등을 타고 찾아온 관광객들로 붐비는데, 최근에는 동양관광객들도 많이 있다.

독특한 삶 문화가 관광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할슈타트

이곳을 관광을 하는 동안 내내 생각되는 것은 투어리즘 시대에는 장엄한 역사적 이력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 도시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다면, 그것이 설명 먼 오지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간 각기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각기 지역에서, 각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독특한 삶 문화가 관광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할슈타트가 그러한 마을이다. 가보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은 마을이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할슈타트의 광장



할슈타트의 멋드러진 카페, 음식점

전주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북부권(팔복, 동산, 조촌)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와 도서관이 복합된 문화관으로 건립하고자 추진하였으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총사업비 80여억원을 들여 2014년까지 북부권 복합문화관을 조성할 예정이다. 본 설계경기 당선작 1등작은 (주)길 건축사사무소, 2등작은 (주)건축사사무소 유엔피 + (유)건축사사무소 이상건축, 3등작은 (주)해마 건축사사무소 + 예인 건축사사무소 안이 선정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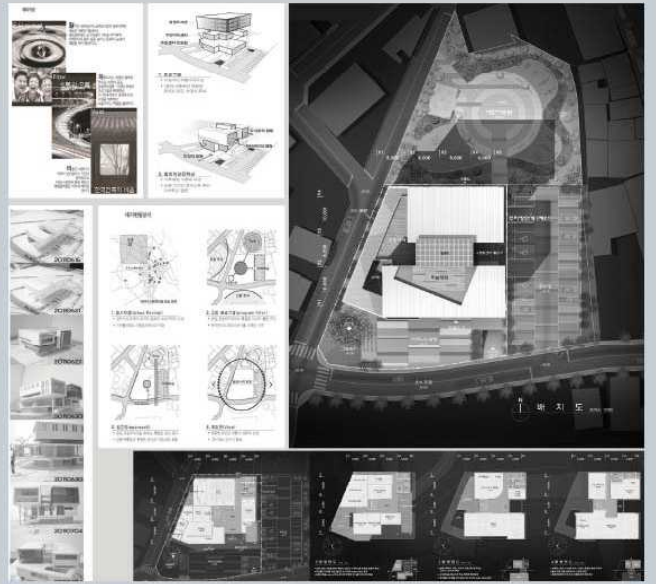
• 당선작 (주)길 건축사사무소_이길환 건축사
 • 우수작 (주)건축사사무소 유엔피 + (유)건축사사무소 이상건축
 • 가작 (주)해마 건축사사무소 + 예인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북부권 복합문화관 건립공사

당선작

(주)길 건축사사무소_이길환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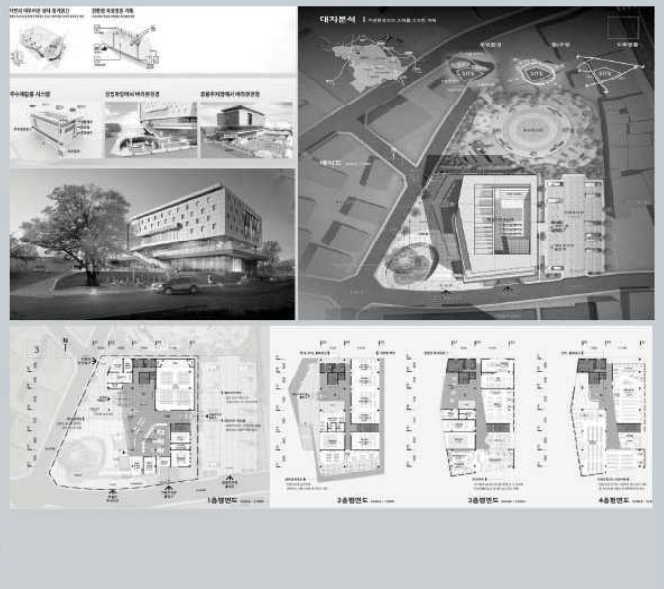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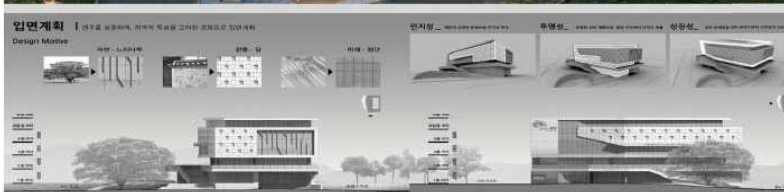
/부지면적: 1,882㎡ /건축면적: 1,128.53㎡ /연면적: 4,142.63㎡ /건폐율: 59.96% /용적율: 165.69%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외부 마감: 압출성형시멘트패널, 목재루버, 컬러복층유리



우수작

(주)건축사사무소 유엔피_유영모 건축사
 (유)건축사사무소 이상건축_조창호 건축사

/부지면적: 1,882㎡ /건축면적: 925.78㎡ /연면적: 4,443.24㎡ /건폐율: 49.19%
 /용적율: 4172.82% /구조: 철근콘크리트 /규모: 1층, 지상 4층



2011년 2월부터 개정된 단열법규의 성능을 만족시키는 친환경 건축 외벽단열재



제품특징

- 단열성: 열적성능을 극대화하여 단열성능 우수
- 경제성: 기밀시공으로 냉, 난방 에너지 절약
- 쾌적성: 결로예방으로 실내의 쾌적함을 유지
- 내구성: 급격한 온도변화에도 제품의 물성유지
- 작업성: 가볍고 연질의 롤타입으로 모서리, 꺾임 시공가능



제품명	종류	규격	용도
SP5000-23T	Roll Type	23mm×1.2m×15m	건축물 외벽 단열재
SP5000-14T	Roll Type	14mm×1.2m×25m	건축물 외벽 단열재

www.superondori.co.kr

S&P (주)슈퍼온도리 제조원: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171-34번지
 TEL.062)951-8600 FAX.062)951-1852

유네스코 국제 흙 건축 학술대회, 목포대에서 열려

- 세계 13개국 100여명의 흙 연구가들 참여해



지난 10월 11일 전남 목포대학교에서 세계 13개국 흙 연구가들이 참여하는 'TERRASIA 2011 국제 흙 건축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유네스코 흙 건축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흙 건축의 고고학적 역사와 가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프랑스, 중국, 일본, 이집트, 미국 등 13개국 100여명의 흙 연구가들이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담양 창평슬로시티에서 체류하며 우리전통 한옥의 잡자리, 먹거리, 문

화공연 등 슬로시티 프로그램을 함께 경험하였다.

한편 담양 창평 슬로시티위원회에서는 달팽이학당 주민교사와 주민이 주축이 돼 '세계 흙 건축가들의 한국방상을 자리다', '한옥에서 머물다', '달팽이 학당에서 어울리다'라는 테마로 국제행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제25회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건축전 열려

-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전시회와 초청강연 등 진행



지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순천대학교 건축학부에서 건축전이 개최되었다. 졸업예정자 작품을 위주로 하여 작품을 전시하였으며, 건축학부 사진동아리의 전시회도 같이 진행하였다.

올해 졸업 작품의 특징으로는 졸업예정자들의 작품 설명서를 비롯하여 각 층 평면도와 입·단면도, 구조설계도, 상세설계도 등을 만들어 각자의 건축물에 대한 도면집을 함께 만들었다. 작년 건축전과 비교하여 작품 수는 줄었지만 실무에서 사용되는 설계

도면에 가깝게 만들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건축전 마지막 날에는 DMP종합건축사무소 성기택 부사장 및 Design 강경만 대표이사의 초청강연회가 열렸으며 이후 순천대학교 건축학과 총동문회도 진행되었다.

2011 농어촌 재생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역건축가 워크숍

- 호남권 건축전문가와 농어촌실무자들의 무관심이 아쉬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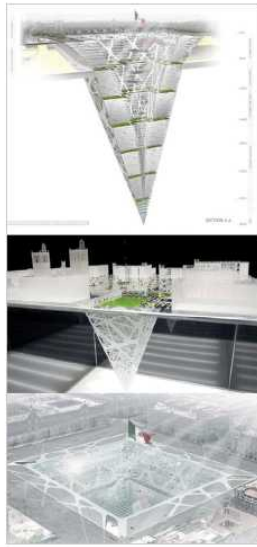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촌건축학회가 주최한 이 행사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열렸다. 첫날 일정은 기초강연, 초청강연, 농어촌건축대전 수상작 작품설명,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례발표등이었으며, 분과별 토론 및 발표는 다음날까지 계속되었다. 농어촌의 주거정책 및 제도, 고품화와 주거복지, 주거환경과 공공시설, 경관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수많은

대안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를 정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이처럼 이번 행사는 민·관·산·학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농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였다.

그런데 참석자 중 행사관계자(호남대학교 최명규 교수/한국농촌건축학회장, 원광대학교 윤철열 교수/행사추진위원장, 조선대학교 조용운 교수/초청강연을 제외하면 호남권, 특히 광주·전남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농어촌문제가 매우 심각한 호남권의 무관심이 정말 아쉬웠던 대목이다.

세상에 이런 건축물이? 역피라미드 형 건축물 디자인 이슈

- 멕시코 건축회사 BNKR, 멕시코 시티에 있는 광장을 대상으로 디자인



도심 속 건축물들이 대체로 하늘을 찌를 듯 높게 지어지는 것과는 다르게 땅 속으로 깊게 들어간 대형건축물의 디자인이 공개돼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멕시코 건축회사 BNKR는 멕시코 시티에 있는 광장 한 복판에 들어설 수 있는 역피라미드 형태의 건축물의 디자인을 공개해 호평을 받았다고 영국 일간 메트로가 지난 10월 13일 보도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구조물은, 건물들이 보통의 땅 위에 세워지는 것과 달리 땅 속 300m를 파낸 65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건축물의 가장 큰 문제인 채광과 환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모든 벽은 특수 유리로 구성돼 맨 아래층까지 자연광이 들 수 있도록 꾸며졌다.

무엇보다 이번 디자인은 탁월한 공간활용이 돋보인다. 피라미드 형태로 각 층별 공간 크기와 용도가 구성됐을 뿐 아니라 지붕에 해당하는 1층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광장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도심에서 열린 콘서트나 전시회, 군사 퍼레이드까지 문제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건축회사 측은 설명하였다.



이러한 대형 지하건축물은 멕시코 시티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멕시코 시티는 전통과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심에 있는 집, 박물관 등 용도의 건축물은 10층, 사무실도 35층 이상은 짓지 못하는 등 건축 규제가 까다로운 편이다.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건축가 에스테반 수아레즈는 "건축물은 그 도시의 환경에 맞춰져 세워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도시의 역사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땅 아래로 건축물이 가장 적절했다."고 취지를 설명하였다.

광주시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 3곳 선정

- 제8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서 사진으로 전시될 예정

10월 초 광주시는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민간부문에 기아자동차 삼지공원과 삼성화재 광주상무 사옥 공개공지, 주거부문에 수완지구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정원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민간부문의 기아자동차 삼지공원은 삭막하고 단절된 회색 담장을 철거하고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업의 사회적 참여와 공공성 기여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삼성화재 광주상무사옥의 공개공지는 건물 1층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도심가로에 상징적인 조형모빌을 배치해 가로경관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다.

주거부문의 수완지구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정원은 지상주차장을 없애고 입주민을 위한 산책로와 연못, 조형물 등을 조화롭게 배치해 인공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연출하였다.

한편 당선된 건축주에게는 광주시장상이 수여되고, 시상물에는 기념동패가 부착되며 공간 사진은 11월 3일에 개막하는 제8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 전시된다.



광주대 건축학과 "2011 초청강연회"

- 첫 번째 이야기 11월 1일 화요일 오후 3시
 - "에테르십을 짓는 네 개의 노"
 - 양성구 (건축가, 에테르십대표)
- 두 번째 이야기 11월 17일 목요일 오후 3시
 -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 김창국 (조경디자이너, 어반정글 수석디자이너)
 - 장소 : 호심기념도서관 5층 세미나실

이희희 학생기자 hh3759@naver.com

건축문화

사랑

창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장 고봉규 |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 회장 김성환 | 경상남도건축사회 | 회장 전상훈 | 경상북도건축사회 | 회장 윤문곤 | 전라남도건축사회 | 회장 이성엽 | 전라북도건축사회 | 회장 최종옥 | 충청남도건축사회 | 회장 이재삼 | 충청북도건축사회 | 회장 허민구 | 강원도건축사회 | 회장 김봉희 | 경기도건축사회 | 회장 배기업 | 울산광역시건축사회 | 회장 이성희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 회장 심상봉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회장 조동욱 | 인천광역시건축사회 | 회장 이택봉 | 대구광역시건축사회 | 회장 이성우 | 부산광역시건축사회 | 회장 강석후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

전주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11월 1부터 시행

- 시 관계자, 아트폴리스 전주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전주시는 지난 10월 18일 확립된 건축물을 탈피하고, 주변 및 가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물의 배치와 외관 등을 규정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1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건축심의 대상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건축물, 미관지구 내에 건축하는 허가대상 건축물 등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심의도서 작성 기준부터 건물 배치, 평면계획, 입면계획,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계획, 주차 등 교통계획이 담겨 있다.

세부적으로는 가로환경 및 주변건축물과 연속성을 갖도록 건물을 배치하고 4차선 이상 도로변 건축물에는 옥외광고를 부착 위치 등을 계획해 미관훼손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건축물의 색채도 다양한 원색보다는 미관에 맞는 낮은 채도를 권장하고 옥상은 정원 등 녹화공간을 반영하고 전기조명도 LED 등 효율이 높은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다중이용시설과 아파트 등 주차수요가 많은 시설물에는 주차설치계획과 아파트 담장 설치계획 등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성황리에 폐막

- 비엔날레 전시회장과 광주폴리에 90만 명 다녀가



지난 9월 2일 개막해 현대디자인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를 되새긴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디자인비엔날레 사상 유례없는 90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며 52일간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세계 유일의 디자인 비엔날레로 디자인 담론의 흐름을 주도하는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세계 언론과 미술·디자인계는 전시를 통해 우리 삶의 모습을 사유하고, 디자인을 오브제가 아닌 장소와 사람의 관계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하고자한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대한 찬사를 쏟아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과 문화단체들이 비엔날레 전시장과 광주폴리를 방문해 디자인비엔날레가 사회에 미치는 문화적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디자인비엔날레와 폴리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도 크게 일고 있다.

또 시민들과 관람객들에게 '누구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는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심어준 참여프로그램도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한편 (재)광주비엔날레에 따르면 광주비엔날레 본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수는 256,802명, 광주폴리를 찾은 관람객 수는 639,700명에 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총 관람객 수는 896,502명으로 집계되었다.

전주시 영화의 거리 시설물, '국제공공디자인대상' 최우수상 수상

-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췄다는 평가



전주 영화의 거리 시설물이 '국제공공디자인대상' 공모전 공공건축물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전주시는 지난 10월 24일 한국공공디자인지원재단과 국제공공디자인대상 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하고 국제공공디자인대상 아시아 조직위원회 등에서 공동 개최한 국제공공디자인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화의 거리는 심사에서 평상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화의 거리가 행정기관 주도의 사업추진 형태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도시를 가꾸고 만드는데 참여하는 창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소식이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전주시는 표창과 함께 심사기판으로 참여한 스위스 세트(Swiss cert)가 인증하는 디자인 국제인증마크도 받았다.

광주시, 제3차 도시디자인 전문가 초청강연회 열어

- '새로운 충격,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주제로 이이남 미디어 아티스트 강연



광주시가 지난 10월 25일, 광주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건축사를 비롯한 공무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제3차 도시디자인 전문가 초청강연회를 진행하였다.

광주시는 올해 초 사람중심의 일부 디자인 창조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2011 도시디자인 아카데미를 계획하였으며, 지난 10월 6일에도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홍군선 디자인전문가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연회는 미디어 아티스트인 이이남 씨의 새로운 충격,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강연 후 질의 및 응답시간을 갖고 참석자들과 토론도 이어졌다.

전북 군산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 지역여건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도시경관 조성 기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등 군산시 도시계획조례가 일부 개정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를 오는 12월 말까지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18층 이하로 규정돼 있는 층수제한 폐지와 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건폐율 완화(20% → 30%) 등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변경으로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입지해 있는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에 대한 건폐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과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특히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제한 폐지로 지역별 자연환경과 주변여건을 고려한 층수 도입으로 지역여건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도시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하였다.

광주·전남·전북 11월 지역축제 안내

- 10. 28 (금) ~ 11. 03 (목) 제14회 전국 둘 문화 축제
- 10. 28 (금) ~ 11. 06 (일) 2011 정남진국화페스티벌
- 10. 28 (금) ~ 11. 06 (일) 제8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 10. 28 (금) ~ 11. 13 (일) 2011 고창국화축제
- 10. 28 (금) ~ 11. 13 (일) 2011 대한민국 국화대전
- 10. 28 (금) ~ 11. 16 (수) 2011 진도 국화 문화예술 축제
- 10. 29 (토) ~ 11. 20 (일) 2011 영암왕인국화축제
- 11. 04 (금) ~ 11. 05 (토) 2011 장성백양단풍축제
- 전북 익산시 중앙체육공원
- 전남 장흥군 천만산 일원
- 전북 익산시 중앙체육공원
- 전북 고창군 상남리 인근
- 전남 함평군 함평엑스포 공원
- 전남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 전남 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 전남 장성군 백양산, 백양사 일원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주는 금융 좋은 금융습관, 신탁이 이어갑니다!

- 실속있는 비과세 예금
- 조합원을 위한 맞춤대출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보험서비스
- 신탁만의 창조합원 우대 서비스
- 빠르고 편리한 전자금융서비스

보다 더 큰 믿음과 혜택을 드립니다

신탁 vs 은행 비교 분석

구분	신탁	은행
비과세 혜택	1인당 예적금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면제, 농특세 1.4%만 부과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부과
이익금 분배	조합원에게 전부 환원(비영리 조직)	주주에게 배분(영리조직)

※ 신탁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1인당 예적금 5천만원까지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

장학금 지급

- 초등학교 입학
- 고등학생
- 대학생

복지기금 지급

- 축, 조의금
- 생일축하금
- 추대회원위로금
- 입원위로금
- 해외여행보조금

광주건축사 신탁
TEL. 062)527-8890~1

광주건축사회, 2011 월례회의 개최

- 건축 관련 현안 업무와 정책개발위원회 추진사항 보고되어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10월 14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11년 월례회의를 개최하였다.

광주건축사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월례회의에서는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건축법 개정 (안) 입법 발의'와 '건축신고대상 제한 등 건축법 개정(안) 정부안 발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규제 개혁위, 구조안전확인대상 확대 건축법 시행령(안) 철회 권고', '신용평가 관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실무

협의 등 건축 관계 법령 보고와 '건축사등록원', '2017 국제건축사연맹(UJA) 세계건축대회 서울 유치',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가입 및 이용안내' 등 협회 관련 보고가 이어졌다.

한편 월례회의 후, 산업안전 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건설업 김경성 팀장의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 보건법 적용설명회'도 진행되었다.

대한건축사협회 이사회, 광주·전남지역 방문

- 이사회의 개최와 디자인비엔날레 및 광주폴리 관람



지난 10월 21일,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의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들이 광주를 방문하여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비엔날레 회의실에서 2011년도 제10회 이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가 광주에서 개최된 것은 광주비엔날레재단의 요청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받아들여 이뤄진 것이다.

이날 이사회회의에서는 2011 한국건축산업대전협회장 표창 건과 2011 인적·재산관리 유공 포상후보자 추천 건을 처리하고, 건축사 등록원 업무범위 안전 등을 협의하였다.

이와 함께 2011 디자인비엔날레와 광주폴리 등을 관람하고, 전남 창평 슬로우시티를 견학하기도 했다.

광주건축사회 제2기 건축사아카데미 2차 강좌 진행

- 3차 : 11/8 (화), 4차 : 11/15 (화), 5차 : 12/6 (화) 오후 7시 진행예정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10월 18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2기 건축사아카데미 제2차 강좌를 진행하였다.

이날 강좌는 건축사아카데미 수강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시설안전공단 박규병 실장의 '구조안전 및 내진 설계란 주제로 열렸다.

향후 열릴 강좌는 11월 8일 오후 7시, 제3차 (주)에코비스이앤씨 조희철 대표의 '친환경건축 개념과 관련 인증제도'라는 주제의 강좌와 11

월 15일 오후 7시, 제4차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김정규 교수의 '현대건축 : 비정형과 친환경' 강좌, 12월 6일 오후 7시, (주)환경이앤씨 송준영 대표의 '건축기계설비 계획 및 실무' 강좌가 예정되어 있다.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2011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 부문 최종 발표

- 사회공공부문 대상에 해남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2011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 부문, 사회공공부문 대상에 전남 해남 고산윤선도 유물전시관이 선정되었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유물전시관은 고산의 삶과 문화에 어울리는 전통한옥으로 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특히 지하의 전시관과 지상의 전통 한옥을 이어주는 매개공간으로서 아트리움 도입과 전시관 동선 배치의 마지막을 녹우당으로 자연스럽게 연계시켜 조화를 이룬 것도 건축적 표현에서 높은

수준을 받았다.

당선작은 (주)공성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상식 건축사가 설계하였으며 (유)유심종합건설에서 시공하였다. 한편 민간 부문에는 (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정영균 건축사가 설계한 sk케미칼연주소(경기 성남), 공동주거부문에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권원 김희훈 건축사의 성남 판교 산운마을 7단지(경기 성남)가, 일반주거부문은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인익의 건축사의 레티스하우스(서울 서초)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광주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 작품설명회 열린다

- 11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세미나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을 위한
광주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
작품설명회 & 전시회
2011 GWANGJU SAJIC PUBLIC ART PROJECT
Presentation & Exhibition
작품설명회 | presentation
2011. 11. 3(목) 14: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세미나실
주최: 김명준 박광준 신희원 이민아 조민석
전시 | exhibition
전시기간: 2011. 11. 3~6
전시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을 위한 광주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 작품설명회가 오는 11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날 설명회는 공공예술프로젝트에 참가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폴리 큐레이터 김영준 건축사와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자인 박동주 건축사, 2006 비즈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 출품자인 신혜원 대표, 2002 비즈니스비엔날레 초대작가 이민아 건축사, 2010 상하이엑스포 한국관 설계자 조민석 마스터디스 대표의 작품설명회 이어진다.

이와 함께 이의 작품들은 제8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개막과 함께 전시부수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며, 2012년 5월 5일 어린이날 오픈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한국건축산업대전 2011 성황리에 막 내리

-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원 500여명 등 전국 4천여 건축사 참가



최신 건축자재를 선보이는 '한국건축산업대전 2011'이 지난 10월 27일부터 4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대한건축사협회 주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90여개 업체가 참가해 최신 건축자재와 기술을 선보였다. 전시회는 제품 전시 외에도 친환경 건축, 건설자재 등에 대한 정보 교류의 장으로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원 500여명 등 전국 4천여 건축사가 참여하였다.

전시기간 우수 건축물을 발굴, 시상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을 비롯해 친환경 건축 리모델링 포럼, 전국 건축사 미술전, 신인건축사 작품전, 건축 사진전 등 부대행사도 진행되었다.

건축문화 사랑 창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사) 회장	광주·전남·전남지회	(사) 회장	한국건축사협회
외 천득염	회원일동	외 강남구	회원일동

건설분쟁! 공정한 평가

"건설분쟁은 공정한 평가와 대화로 해결된다."

감정인 건축사 정태호

25년 공사원가분석
15년 법원 공사비 감정 위원

TEL: (062)512-8044 HHP: 010-3602-3378

전남건축사회, 2011 건축인의 밤 개최한다.

- 11월 24일 (목) 오후 3시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 연회장에서



작년 호텔현대 목포에서 진행된 전남건축인의 밤

전남건축사회는 오는 11월 24일 오후 3시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 연회장에서 '2011 건축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건축인의 밤 행사에 전남도·시·군 건축공무원을 비롯한 전남건축사회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부(초청강연)와 2부(만찬)로 나누어 진행되는 데, 초청강연에서 건축분야 전문강사와 함께 개그맨 김학래 씨의 '웃음은 돈이다'라는 주제

의 강연이 진행된다.

전남건축사회 이정수 사무국장은 "작년보다 더 나은 건축인의 밤 행사를 위해 민반의 준비를 마쳤으며, 전남건축사회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 건축계 동정

*입회

- 강동영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리움 / 광주 서구 쌍촌동 964-13
- 이주경 건축사 / (주)빌해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매곡동 337

*변경 (소재지 변경)

- 박익진 건축사 / 광일 건축사사무소 / 광주 동구 계림동 489
- 최수일 건축사 / 백제 건축사사무소 / 광주 광산구 신항동 1174 (4층)
- 차은영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시명 / 광주 서구 화정동 407-8 국민생활관 202호
- 박재윤 건축사 / 에드빌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내방동 471-3 (2층)

*부고

- 문홍성 건축사 / 영창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2011. 10. 16 (일)
- 신춘효 건축사 / 지에이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11. 10. 30 (일)

전남 건축계 동정

*전출

- 김재식 건축사 / (전북전출) 심진 건축사사무소 / 전남 목포시 상동 853-7

전북 건축계 동정

*변경 (소재지 변경)

- 서봉욱 건축사 / 아이에스 건축사사무소 / 김제시 요촌동 366-2
- 이영준 건축사 / 아리온 건축사사무소 / 김제시 요촌동 366-2
- 김종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AT / 김제시 요촌동 366-2

*결혼

- 송대현 건축사 / 진성 건축사사무소 / 장녀 결혼 - 2011. 11. 12 (토) 오후 2시

*부고

- 김정태 건축사 / 김정태 건축사사무소 / 장인상 - 2011. 10. 13 (목)

건축문화사랑 창간 2주년을 맞이하며

'건축과 도시에 대한 소통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창간한 '건축문화사랑'이 창간 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발행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신문을 애독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창간 2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호는 4면을 증명하여 20원, 3,000부를 발행하고 11월 3일에 개최하는 제8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입장객들에게 무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욱 의미 있는 신문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 편집위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문화사랑 편집위원 일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 제101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1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축산업용 또는 조립식"을 "축산업용"으로, "시공하지 아니할"을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고, 3개층 이상인 주택만 해당한다)인 건축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41조제1항제4호 중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
- 법률 제101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제3호(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8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로," "제86조"를 "제86조(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너무 넓게 규정하여 「건축법」 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건축물 대부분이 시공할 때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건축물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조립식 건축물 등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건축물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입주인 및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967호, 2011-10-21)

개정이유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서 화물차량에 대한 하역주차 수요 충족과 하역주차구역 추가 설치로 해소시켜 시설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하역주차 공간이 필요할 경우에 승용차용 주차단위구획을 하역주차구획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주차전용건축물에 노유자시설 설치 허용(안 제1조의2)
- (1)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에 노유자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 (관련법령)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 시설)
- (2)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에 노유자시설을 추가하고, 노인·아동 관련 시설 설치를 허용할 경우 해당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함
- (3)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부응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을 탄력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화합과 수익성 확보도 기대됨

- 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하역주차구획 확보(안 별표1 비고)
- (1) 도심에서 화물 하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화물 하역에 어려움이 있고 인근 교통정체가 유발되어 부설주차장에 하역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2) 하역주차 공간이 필요할 경우에 승용차 주차구획을 하역 주차구획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된 주차하역구획은 승용차 주차구획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인정하도록 함
- (3)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화물주인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효과와 시설주의 부담 완화도 기대됨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ra.or.kr>) 법령식민 참고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2012년 10월 광주에서 뵈겠습니다.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춘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서 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업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062-226-7400 팩스: 062-225-5310
홈페이지: nicelawyer.co.kr/윤변호사.com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심상봉, 윤문곤, 이성엽
편집인 박홍근
전담기자 과속극
편집위원 이순미, 서재형, 강필서,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천경훈, 이광영, 박상윤, 정관성, 박종호, 양우현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심화문화사 T.062)222-6660
광고신청 T.062)521-0025



표 / 지 / 설 / 명

건축문화사랑 창간 2주년
창간 2주년을 맞는 '건축문화사랑'이 독자들에게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 건축문화사랑 편집위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 발전기금: 1만 원부터
- ▶ 후원방식: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문 형 록 | 반석기(조이앤씨(주)) 100만 원
(주)하나건설 50만 원
알파시스템(주) 50만 원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 (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 원고마감: 매달 25일
- 문 의: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 E-mail : gkira@empal.com
-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내가
읽은
책

간송 전형필 이철렬 지음 / 김영사 펴냄

김영지
광주 북구 두암동



조선의 국보와 혼을 지킨 수문장, 간송을 만나다!

한국의 미를 지킨 대수장가 간송의 삶과 우리 문화재 수집 이야기 『간송 전형필』. 일제강점기 시대,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으나 억만금의 재산과 젊음을 바쳐 일본으로 유출되는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수집한 간송 전형필의 삶을 다룬

평전이다.

서화, 도자기, 불상, 석조물, 서적 등 그가 수집한 문화유산은 국보와 보물 등의 국가 지정 문화재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사적으로도 가치가 높다는 학계의 평을 받

고 있다.

이 책은 왜 간송이 문화재 수집에 모든 것을 바쳤는지, 그런 그에게 어떤 번민과 고통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를 사로잡은 한국의 미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간송 전형필의 수집품들은 성북동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 사립(개인) 박물관인 간송미술관을 설립한 전형필이 그 주인공이다. 간송미술관을 운영하는 후손들은 그가 문화재를 수집한 이유가 개인의 명예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의 얼과 혼을 지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음을 잊지 않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문화유산에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한
편
의
시

그 여인의 청춘예찬

곽승원
광주 영민수협

보들보들한 피부는
그 부드러움이
비단과 같고

새까만 머리카락은
마치 흑나비조개에서
방금 깨어난
흑진주 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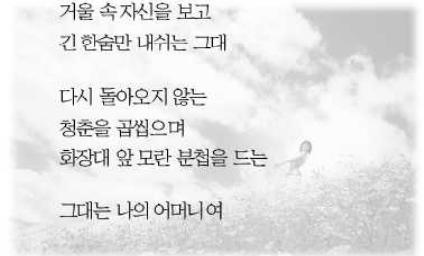
저 거녀낸 손은
마디마디마다
분홍빛이 나고

청초한 눈망울은
마치 저 멀리 이국의
맑고 깊은
바이칼 호수같네

어느새 저 모습에 사라져
거울 속 자신을 보고
긴 한숨만 내쉬는 그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청춘을 곱씹으며
화장대 앞 모란 분첩을 드는

그대는 나의 어머니여



하
늘
생
기
고

'死' 람 '人'

정세영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혹시 사람 '인'의 유래를 아는가? 사람 '인'은 같이 도와주면서 생활하는 것으로 생겼다고 한다. 그렇지만 필자가 어느 책을 읽어 보았더니 그 뜻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는 것이라고 한다.

왕따... 왜 시키는 걸까? 또한 왜 당하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왕따를 시키는 이유? 그건 내가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야. 또 다른 이유는 그냥 맘에 안 들어서 그런 것 이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짐승들 중 가장 무섭다는 소리가 나왔을 것이다. 그렇지만 왕따를 시키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느껴 보았을까? 아마도 단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했기에 왕따를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한번이라도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았다? 면 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사회는 분명 한명의 왕따라도 존재할 것이다. 그 사람들은 그냥

순수 한글 사람이 아니라 死람 일 것이다.

난 왕따를 시키는 사람들에게 설득을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남과 입장을 바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지닌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지만, 남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만의 품성이 라고 해서 저절로 타고 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린 강아지를 교육을 시키듯이 그 사람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겁어 봐야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가 있다'라고 말이다.

필자는 '지금사회' 사람들이 알고 있듯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옛날시대' 같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는 행동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써본다.

세
상
사
는
느
끼
고

생활속의 황금비율

강재구
(주)삼흥건설 차장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위를 둘러 보면 가장 적절한, 적당한 비율이 존재한다. 흔히 황금비율이라고 하면 기하학적으로 가장 조화가 잡힌 비율을 말한다. 즉 1.618:1이다. 신용카드 크기, 담배갑 크기, A4 용지 등 생활 속에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가장 편안한 느낌을 주는 비율이다. 그러나 우리의 잠재의식 속 깊숙이 자리 잡은 생활 속의 황금비율은 따로 있다. 바로 3:7 비율이다.

비율이다.

먼저 3이라는 숫자에 대해 열거해보면,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교육을 위해 세 번 이사했다는 맹모삼천(孟母三遷), 유비가 제갈공명을 세 번 찾아갔다는 삼고초려(三顧草廬), 행동하기전에 세 번 생각한다는 삼사이행(三思而行), '구술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등 3이라는 숫자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 3은 많은 양과 긴 시간을 뜻한다.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있는 삼천리 강산이며, 삼신할머니가 점지하여 태어나 하루 세끼를 먹으며 죽어서도 3일장을 치른다. 삼경분묘과 삼진아웃 등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쉽지 않을 만큼 우리 정서 깊숙이 3이라는 숫자는 얽혀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7이란 숫자를 살펴보자. 7은 행운의 숫자의 상징이다. 1주일 중에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속죄의식을 치를 때 피를 일곱 번 뿌렸고, 결혼식도 7일, 추모기간이나 큰 축제도 7일간 이었다.

불교에서도 석가모니는 7년 동안 구도의 고행을 했으며, 명성수행을 들어가기전에 보리수 나무를 일곱바퀴를 돌았으며, 극락은 일곱천계로 되어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의 각 장마다 일곱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그리스도교에서 일곱은 매우 중요한 숫자로 되어 있다. 이처럼 7은 '완성'을 나타낸다.

자 이쯤되면 3:7이라는 비율이 얼마나 놀라운 비율인지 설명이 되었을 것이다. 바로 동양과 서양의 정서가 적절히 접목된, "가장 오랜시간을 고민하여 결정된 완벽

한 비율"이라는 뜻으로, 전라도말의 '거시기'의 디테일한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이 대목에서 가만히 거울을 보시라. 앞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예전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 3:7 가르마가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비율이며, 결혼을 할 때 신랑신부 혼수예단 금액 비율도 3:7이며, 메밀국수의 메밀과 밀가루의 비율도 3:7이다. 소주와 맥주의 폭탄주 혼합비율도 전국적으로 3:7을 가장 즐긴다. 단풍에 물든 산도 3:7의 비율일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한다. 더 이상 예를 들기도 입 아프다!

거두절미하고, 우리 생활속에서 원가와 원가를 섞는다고 생각하면 90% 이상이 3:7이다. 생활속의 황금비율이라 칭할만 하다. 그러나 요즘 TV에서 말하는 유행어처럼, 3:7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최고량을 차거나 경찰 출동을 하지는 않는다.

자, 깊어가는 가을, 너무 일에만 전념하지 마시고 그간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 못했던 보고싶은 이들과 3:7의 놀라운 비율로 채워진 단풍구경도 하시고 3:7로 소맥도 마드시는게 어떠실지 추천해본다.

전
국
사
가
러
리
&
P
h
o
t
o



잠깐의 포즈

잠간에 휴식일까
잠간에 포즈일까
나도 뽐내고 싶다.
이 새처럼 말이다.
박상찬 건축사(전북) 작

5도



무술목 일출

초가을이지만 역시나 새벽의 바닷바람은 심장까지 일게 한다. 하지만 그 주위와 함께하는 새벽녘의 일출은 연심정을 녹이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무술목 일출

촬영자 : 박종호 건축사(자) 작

“建築 = 人間+時間+空間”

건축은 인간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완성되어진다. 건축인들이 인간에게 유익한 공간을 제공하는 건축행위를 하는데 '건축문화사랑'이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 또한 지속적인 발전도 있기를 기원한다. 바쁜 일정 중에도 신문편집에 참여 해주신 편집위원, 학생기자 그리고 좋은 원고를 제공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미 있는 광고로 신문에 동력을 제공해 주신 광고주께도 감사드립니다.

박홍근 편집인

'건축문화사랑'이 발간 된지도 어느덧 2년, 벌써 두 번째 가을을 맞이 한다. 우리 모두가 매일 매일 '건축이란 무엇인가' 라는 화두속에서 '문화' 이기를 바라는 작은 마음이 노력의 결실로 맺어지고 있음을 회고 한다. 발행인이신 회장님을 비롯하여 편집장님 그리고 편집위원들은 눈높인 들판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의지하며 발간을 하게 된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훗날 그 때 그것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평가되어진다면 참으로 아타까운 만을 남기고 껍데기로 치부되어질게 당연하기에

서산 대사의 시

踏雪野中去 (답설야중거) 눈덮인 들판을 걸어갈제
不須胡亂行 (불수호란행) 함부로 걷지 말지어다
今日我行跡 (금일야행적)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욱이
遂作後人程 (수작후인정)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하는 심정으로 매월 한 발자욱 씩 내딛었음을 고백한다...
언제 완성되어지지 모를 시를 오늘도 써 내려간다...
'건축문화사랑' 사랑합니다.

정명환 건축사기자

건축문화사랑 접하다

건축문화사랑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게 된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가벼운 마음으로 편집위원 자리를 받아들였지만 늘 바쁘게 흘러갔다.

출장에 야근이 매일 반복되는 건축인의 삶속에서 편집위원 자리가 때론 벅차고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건축문화사랑'이란 건축문화 소식지가 많은 사람들의 봉사과 희생에 의해 힘겹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건축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회문화 저변에 깊숙이 스며들어 사회일원으로써 동참하여 우리의 몫을 찾고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갖추어야 되겠다는 것을 피부 깊숙이 느낀다.

짧은 기간이지만 편집위원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활동하지 못한점 항상 죄송스럽고 미안한 생각뿐이다.

다들 바쁜 와중에도 건축문화사랑에 애착을 갖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모든 분들께 건축인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회 참여와 건축인의 문화발전의 장으로써 역할을 기대하며 보다 많은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

박상윤 건축사기자

벌써 2주년일까? 아니면 '아직 2주년일까?' 건축문화사랑과 함께 했던 2년여는 '보람'이었고 '부담'이었다. 그리고 그 발자취는 영원히 지울 수 없게 되었다. 어찌 됐든 훗날 까먹을 수 있는 추억거리는 남긴 셈이다. 이왕이면 자랑스러운 흔적을 남기기 위해 오늘도...

서재형 건축사기자

가을이 점점 짙어가는 시간. 겨울은 곧 우리곁에 오겠지.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계절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지... 건축문화사랑도... 편집위원가족도...

이순미 건축사기자

그동안 건축이라는 눈에 빠져 허우적대며 고뇌와 번민 속에서 세상을 향한 분노의 울분을 토하던 내게 따스함으로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준 건축문화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대의 비굴함으로 얼룩진 그들의 면전에 침이 아닌 미소를 던질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날까지, 건축문화사랑이여 영원하라!!!

이광영 건축사기자

속도에 가속도를 더하여 성급 다가온 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1년 동안 '건축문화사랑'을 위해 애쓰고 격려해 주신 분들과 따뜻한 차 한 잔 하고 싶다.

이 가을 한 자락을 붙잡고 싶은 아쉬움과 "건축문화사랑"을 위해 좀 더 최선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면서...

박신남 건축사기자

'건축문화사랑'을 떠나는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 같다. 서로 마주하는 끝없는 평행선의 기차길은 어느 순간 저 멀리 한 점의 소실점으로 모이게 된다. 우리 발밑에 그려진 기차길처럼 저 멀리서 소실점을 갖는 그 순간 우리는 '소중한 인격'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그곳을 '心樂園'이라 부르고 싶다.

원광대 서민석 학생기자

건축문화사랑 신문이 2주년을 맞이하였다. 학생기자의 신문을 언제까지 지내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나에게 남은 날들을 좀 더 알차게 만들어 건축문화사랑 신문이 더욱이 번창할 수 있게끔 자양분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전남대 김예루 학생기자

박홍근 건축사님, 강필서 건축사님, 이순미 건축사님, 서재형 건축사님, 신영은 건축사님, 박신남 건축사님, 정명환 건축사님, 박종호 건축사님, 정영법 건축사님, 천경훈 건축사님, 이광영 건축사님, 박상윤 건축사님, 양우현 건축사님, 그리고 대학생기자님들까지 본지 '건축문화사랑'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이분들의 순교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승국 전담기자

사랑에 대한 짧은 기록. 우연한 기회에 발을 들이게 된 건축문화사랑... 현실에 찌들어 살다 한번씩 건축문화사랑이라는 이상으로의 나들이는 나에게 삶의 양념이상의 그 무엇이었다. 기대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편집위원활동은 나에게 매력이고 항상 쫓기는 스케줄에 오롯이 몸담기 힘들이가 아쉬움이다. 앞으로도 나에게 있어 건축문화사랑은 설렘이며 채찍이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천경훈 건축사기자

생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나날이 게을러집니다. 팍기자님 덕으로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팍기자님, 파이팅!! 건축문화사랑, 파이팅!!

신영은 건축사기자

"2주년"

큰부담으로 다가와 아직도 작은부담으로 남아있는 편집위원생활 먼저 나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반성해본다. 음... 기사를 넣는것도 좋지만 주위사람들을 '건축문화사랑'의 주인으로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나의 더 큰 임무인듯 싶다. 3주년을 기념할 때는 더 발전된 고민이 있기를 기대한다.

양우현 건축사기자

이제 몇 안되는 녀석들이 세상 빛을 본것 뿐입니다.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녀석들이 다양한 형태로 당신곁을 찾아갈 것입니다. 편집위원들의 노고로 나름 다듬어서 보냈는데 아직도 비닐봉투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녀석들도 있더군요. 바른녀석이 되도록 부디 반겨주시고 관심과 사랑과 채찍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사랑의 짐재력을 일깨워 주세요.

박종호 건축사기자

새시대!

대한민국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광주건축사회!

- 시민 결연 언저나 든든한 300여 광주건축사회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광주 개최

대한민국 8,000여 건축사들의 축제가 광주에서 개최됩니다. 광주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축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행사명: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 일 시: 2012. 10월 중
- 장 소: 광주 지역 일원



▶ 광주건축 · 도시문화제 개최

매년 광주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개최하고 있는 광주건축 · 도시문화제가 올 가을, 시민들을 찾아가합니다.

- 행사명: 제8회 건축도시문화제
- 일 시: 2011. 11. 3(목) ~ 6(일)
- 장 소: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서구 치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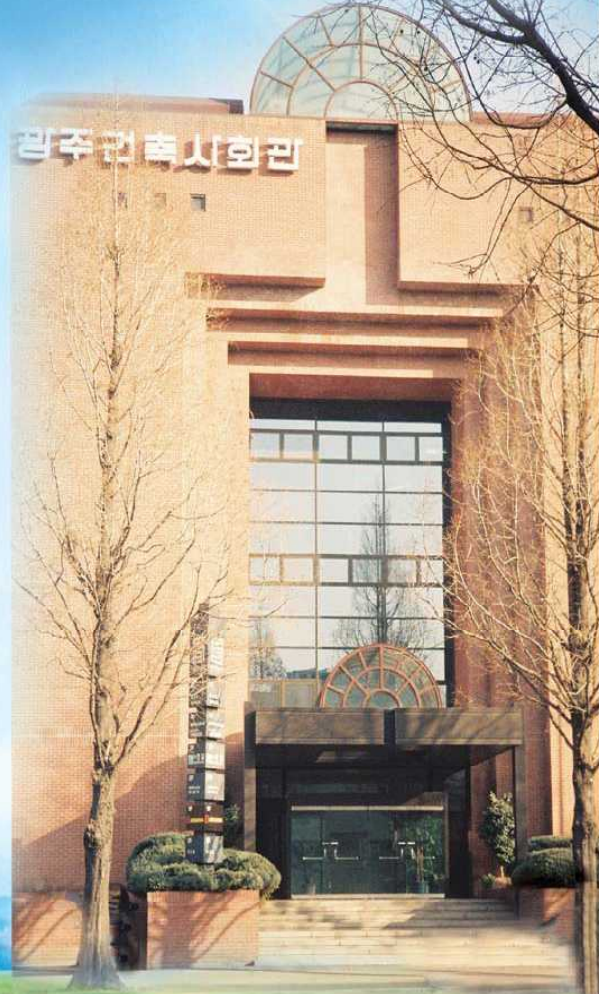
▶ 국제건축문화 교류

광주건축사회에서는 지난 1998년부터 일본 JIA 후쿠오카회와 활발한 건축문화 교류를 통해 한·일 양국의 새로운 건축문화를 창조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에는 '교류는 미래를 향한 도전'이란 제목의 교류 10주년 기념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 시민안전 결의대회

광주건축사회원은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확인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위험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500-876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485 (중흥동 694-10)
Tel.(062)521-0025~6 Fax.(062)528-0026
홈페이지 <http://gjkira.kira.or.kr>

LG Hausys

창에 대한 모든 것



TOTAL WINDOW SOLUTION



발코니창

발코니창은 확창/비확창 이데믹 발코니/가설에 설치하는 PVC창으로 단열/차음 성능이 뛰어나 이데믹 외부에 설치가 용이합니다.



내향/외향용 창호

내향/외향용 창호는 이데믹 창 및 일반 창에 사용하는 PVC창으로 단열/차음성이 뛰어납니다.



시스템창

일반 발코니창, 내향/외향 구조창도, 내구성, 디자인이 일체화 된 고품격 창호로 제철에 따라 PVC, 알루미늄, 철강으로 구분됩니다.



발코니창

발코니창은 확창/비확창 이데믹 발코니/가설에 설치하는 PVC창으로 단열/차음 성능이 뛰어나 이데믹 외부에 설치가 용이합니다.



내향/외향용 창호

내향/외향용 창호는 이데믹 창 및 일반 창에 사용하는 PVC창으로 단열/차음성이 뛰어납니다.



시스템창

일반 발코니창, 내향/외향 구조창도, 내구성, 디자인이 일체화 된 고품격 창호로 제철에 따라 PVC, 알루미늄, 철강으로 구분됩니다.



BIPV

BIPV (태양광발전시스템)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건물외부에 창에 설치하기 가능한 최첨단 창호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커튼월

커튼월은 초고층 빌딩, 상업용 건물에서 유리 외벽에 이코가리지 못 넓게 사용되는 고강도 외장 시스템으로 디자인의 자유로운 창호 디자인의 강점인 시스템입니다.



가능성 유리

가능성 유리는 단열성을 강화한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단열가능유리 시스템으로 저전력도 기능을 최적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럭시에너지(주)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33-33
대표전화 062)525-6801
www.alfawindow.co.kr

알파시스템창호(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 913-4
대표전화 062) 9 4 3 - 6 8 0 1

MICRO PILE 공법

기존건물의 기초보강, 굴착장비의 불가능한 협소한 지역 시공시,
연약지반, 사면의 보강등에 적합한 공법

시공사례



서울 연천초등학교



일산 양일중학교



장성 문화예술회관



광화문 햄머링 동상



부천 우편 편집국

